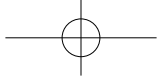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공부하는 공무원들이 만드는 창조적이며 도시공간



2013 상반기 공무원
공공미술아카데미 <창조적인 도시공간>
강의 자료집

주최 경기도, 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경기문화재단

담당 여경환
총괄 양원모
디자인 김현아

편집인 이광희
발행인 엄기영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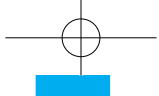
© 2013 경기문화재단

본 자료집은 경기문화재단 공공미술아카데미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T. 031.231.7263
F. 031.236.0283

www.ggcf.or.kr
twitter.com/ggcf_kr
www.facebook.com/ggcforkr
blog.ggc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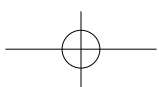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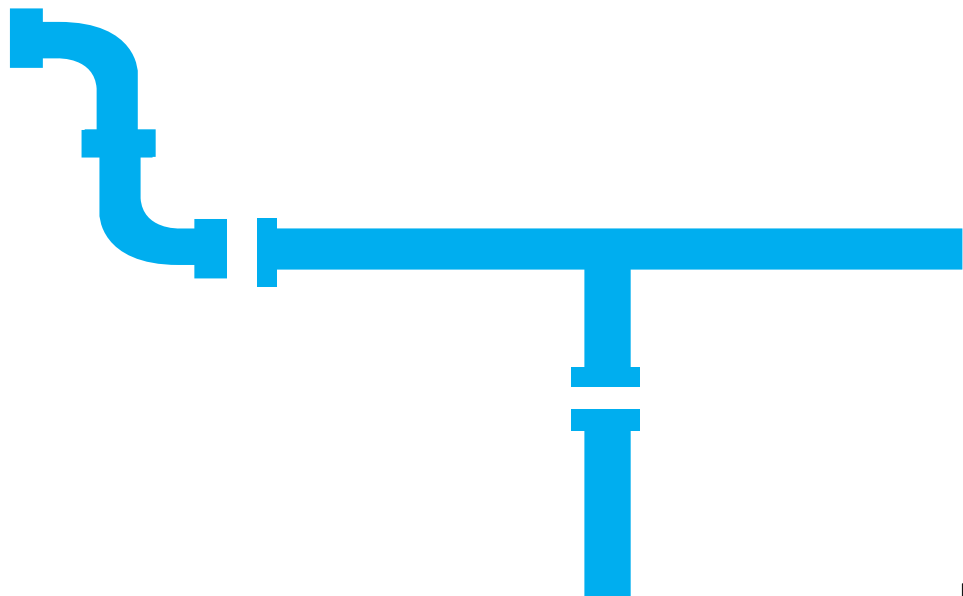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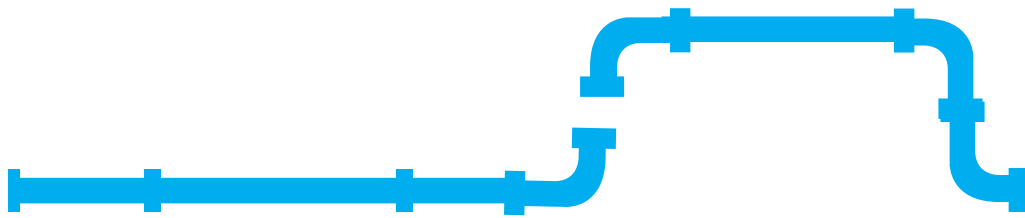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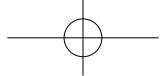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공부하는 공무원을 위한 창조적 도시 공간,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도시 공간과 커뮤니티의 삶이 조화로운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총체적
모색으로 공무원 대상 공공미술 아카데미를 엽니다.
창의적이고 재기발랄한 도시공간의 접근을 통해 국내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를
둘러보고자 합니다.

공공 공간에서 예술 활동은 단순한 공공 조형물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경기문화재단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2014년 31개 시·군을 순회하는 <2014 노매딕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은 이 프로젝트를 각 시·군에 소개함은 물론 건축물미술장식제도에서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지역적 실천현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좌소개

강좌명 2013 상반기 공공미술아카데미 <창조적인 도시 공간>

일 정 ※상반기 : 2013. 5. 30(목) 10:30-18:00 / 5. 31(금) 10:30-18:00

※하반기 : 9. 12(목) 10:30-18:00 / 9. 13(금) 10:30-18:00

※해외연수 : 일본 세토우치 국제예술제(<http://setouchi-artfest.jp>) 연수

참가시 각 기관별 예산편성 요망(별도 안내 공문 예정)

10월 21(월)-24(목) 3박 4일 일정으로 약 1,500천원 소요예상

대 상 31개 시·군 공공디자인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공공 문화재단 담당자

협 력 경기도 인사과 인재양성팀(상시학습제도 개인학습시간 7시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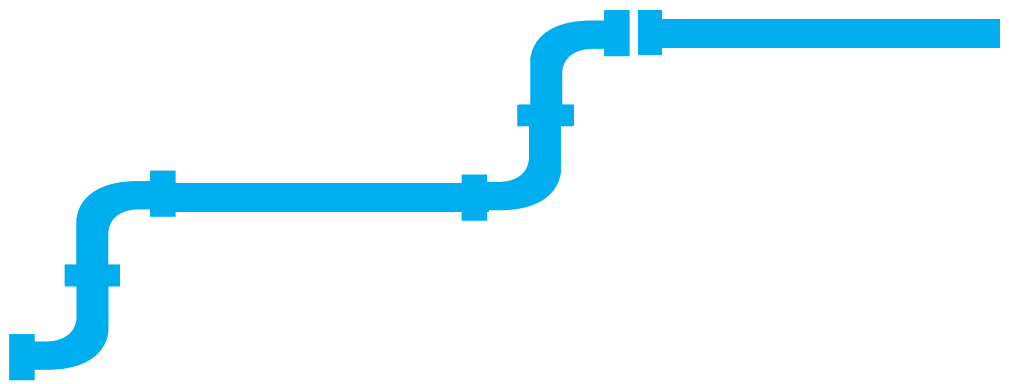
접 수 참가양식을 작성 공문 접수

첫째 날 프로그램

첫째 날			
진행 시간	구분	프로그램	발표자
10:30-10:40		인사말	이광희 재단 사무처장
10:40-11:00		경기도의 커뮤니티아트 맵핑	양원모 문예지원팀 팀장
11:00-12:00	강의	공공미술 정책의 변천과 실천과제	양현미 상명대학교 교수
12:00-13:30	점심		
13:30-14:30	사례 발표	안양공공미술 프로젝트	심혜화 안양문화예술재단 공공예술감독실 팀장
14:30-15:30	사례 발표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소개	곽소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연구원
15:30-16:00	휴식		
16:00-17:00	사례 발표	창조적인 도시 공간 만들기	이광준 바람부는 연구소 소장
17:00-18:00	종합 토론	종합 토론	여경환 문예지원팀 책임연구원

둘째 날 프로그램

둘째 날			
진행 시간	구분	프로그램	발표자
10:30-11:00		2014 노매딕 공공미술 프로젝트 소개	백기영 문예지원팀 수석연구원
11:00-12:00	강의	도시를 디자인 하다!	최 범 디자인 평론가
12:00-13:30	점심		
13:30-14:30	사례 발표	3331 아츠 치요다 프로젝트 소개	마사토 나카무라 3331 아츠 치요다 디렉터
14:30-15:30	사례 발표	토리데 아트 프로젝트 소개	강우영 홍익대 강사
15:30-18:00	현장 투어	안산 예술이 흐르는 공간 / 안양 유원지 학운 공원	여경환 문예지원팀 책임연구원



차례

공공미술 정책의 변천과 실천과제 | 양현미 | 06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 2013 | 심혜화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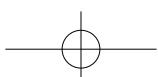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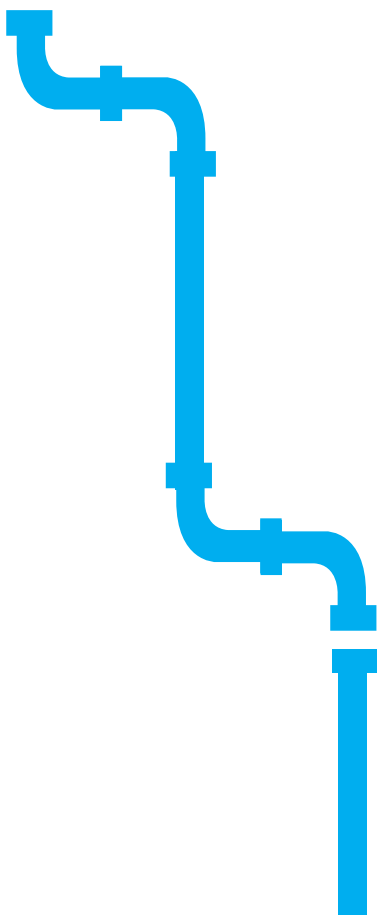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소개 | 곽소연 |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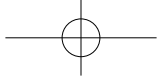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창조적인 도시 공간 만들기 | 이광준 | 58

도시를 디자인 하다! | 최범 | 66

3331 아츠 치요다 프로젝트 소개 | 마사토 나카무라 | 70

토리데 아트 프로젝트 소개 | 강우영 | 90





공공미술 정책의 변천과 실천과제

양현미 |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Ph.D

I. 서론

- 이 글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 공공미술을 지원정책은 크게 법률에 의한 제도와 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법률에 의하여 공공미술을 지원하는 제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임
 -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건축물 미술작품법이 제정되어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공공미술에 사용하도록 함
 - 참여정부 시기부터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의거하지 않는 공공미술 지원사업 시작
 - 공공미술 지원사업은 국고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단년도 정책사업임
 - 공공미술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도시환경 개선 관심과 결합되면서 지자체에도 확산되어 있음
- 정부의 공공미술 지원정책을 공공미술 제도와 공공미술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음
 - 법률에 근거한 공공미술 지원제도 : 건축물 미술작품법
 - 국고 및 기금에 근거한 공공미술 지원사업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례

II. 법률에 근거한 공공미술 지원제도 : 건축물 미술작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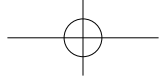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역사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도시 문화환경 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음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변천과정은 크게 세 단계(권장 시기, 의무화 시기, 규제 완화 시기)로 나누어짐

〈표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시대 구분

구분	연도	비고
권장 시기	1972~1994	문화예술진흥법 근거조항 마련, 설치 권장
의무화 시기	1995~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전국 설치 의무화
규제 완화 시기	2000~현재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설치비용을 건축비 1% 이상에서 1% 이하로 낮춤
선택적 기금제 도입 시기		

- 권장 시기(1972년~1994년)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작품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이 신설됨
 - 1988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기준을 완화함.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 (서울특별시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함
- 의무화 시기(1995년 이후)
 - 1995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가 권장에서 의무로 개정됨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함
- 규제 완화 시기(2000년 이후)
 -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개혁작업단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건축 규제로 분류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문화부에 요구하였음



-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미술장식 비용을 건축비의 1% 이상에서 1% 이하로 낮추는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미술장식 비용은 0.7% 대에 머물고 있음
- 2009년 7월 7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보칙에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규제 재검토 조항이 신설되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표2〉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보칙 〈신설 2009.7.7〉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 선택적 기금제 도입 시기(2011년 이후)

- 2011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로 제도 명칭을 전환하여 미술장식에 국한되었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함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의 적용대상을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에 대해 달리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1%이하에서 1%이상으로 강화
-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작품의 직접 설치 외에 기금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시 요율을 완화함으로써 민간건축물에 대한 추가적 규제완화 효과를 가져옴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법적 근거

1) 근거 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표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품의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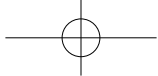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

-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 제15조의 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 1)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1972.8.14 법률 제2337호] 제13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 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2) 문화예술진흥법 [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4883호]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 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32호]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2) 건축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함
-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과 같은 10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함

〈표4〉 건축물의 종류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미술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규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을 말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함

2) 미술작품

- 미술작품이란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함
 -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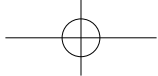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3) 미술작품 사용금액

● 미술작품 사용금액은 건축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 적용비율(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 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은 심의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시·도지사에게 최초로 신청한 시점
- 연면적은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경우 시설별 적용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함

※ 연도별 표준건축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의미함

연도	표준건축비	연도	표준건축비
2000	1,072,000	2007	1,382,000
2001	1,119,000	2008	1,441,000
2002	1,145,000	2009	1,580,000
2003	1,192,000	2010	1,575,000
2004	1,270,000	2011	1,627,000
2005	1,321,000	2012	1,630,000
2006	1,336,000	2013	1,664,000



●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적용비율

- 미술작품 사용금액은 건축물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다름
-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인가 혹은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인가에 따라 미술작품 비율이 다르며 다음 표와 같음

〈표5〉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건축물의 종류	미술작품 사용금액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가. 시(자치구가 설치 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출연 금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③, 시행령 제12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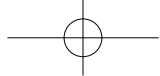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 미술작품 직접설치 비용의 100분의 70

5) 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납부 절차

● 미술작품 설치절차



1.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설치의무를 고지
2. 건축주는 미술작품 계획을 수립 [상세보기](#)
3. 계약 [상세보기](#)
4. 건축주는 시·도지사에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신청
5.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감정·평가 [상세보기](#)
6. 시·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확인 후 사용승인
7. 사용승인 [상세보기](#)
8. 사후관리 [상세보기](#)



● 문예진흥기금 출연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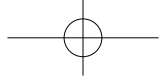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시 세제 혜택

- 1) 법인 :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손비처리 - 기부금영수증(법인) [다운로드](#)
- 2) 개인 :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소득공제 - 기부금영수증(개인) [다운로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현황

1) 연도별 미술작품 설치 건수

구분	시도																	계
연도별	서울	세종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량
총계	3,107	13	1,255	767	833	478	516	285	3,645	344	271	306	255	186	263	694	188	13,406
1995	4	0	15	0	2	0	0	0	4	0	0	0	0	0	0	1	0	26
1996	128	0	48	0	3	0	9	0	3	2	3	0	0	0	0	9	0	205
1997	145	0	137	8	31	3	8	0	30	0	3	0	0	0	0	10	0	375
1998	180	0	43	21	4	19	38	15	42	5	3	0	0	0	0	3	7	380
1999	293	0	45	33	21	9	63	4	73	7	1	0	0	0	0	7	0	556
2000	206	0	60	37	15	10	28	17	109	4	1	0	3	7	0	28	15	540
2001	184	0	72	33	19	79	25	41	215	0	12	1	15	3	10	19	2	730
2002	118	0	46	66	93	30	27	6	307	19	8	5	12	14	10	62	2	825
2003	162	0	67	57	66	35	32	14	388	12	8	9	26	11	13	39	20	959
2004	228	0	76	27	83	23	49	24	441	14	8	19	21	17	25	80	4	1139
2005	231	0	108	50	56	31	48	16	371	26	17	42	16	19	25	76	6	1138
2006	210	0	123	77	54	55	38	24	291	51	41	47	38	24	33	49	18	1173
2007	285	0	79	138	86	38	38	24	271	44	40	43	26	14	26	49	28	1229
2008	195	0	90	60	32	47	28	18	221	37	29	35	33	22	36	97	18	998
2009	122	0	35	47	36	40	10	22	262	51	28	40	19	12	27	49	31	831
2010	177	0	39	46	70	21	19	26	250	32	46	24	4	17	35	79	6	891
2011	178	5	61	49	85	21	36	13	203	21	5	23	12	18	20	18	25	793
2012	61	8	111	18	77	17	20	21	164	19	18	18	30	8	3	19	6	618



2) 연도별 미술작품 설치 금액

단위:백만

구분	시도																	계
연도별	서울	세종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격
총계	140,887	1,339	96,198	56,962	68,655	32,590	36,111	20,270	277,138	24,692	27,369	27,001	19,744	13,092	19,110	57,223	9,460	927,850
1995	363	0	1,326	0	3	0	0	0	97	0	0	0	0	0	0	10	0	1,800
1996	112	0	3,623	0	523	0	0	0	0	0	538	0	0	0	0	207	0	5,005
1997	940	0	5,257	656	2,256	208	480	0	1,331	0	189	0	0	0	0	67	0	11,386
1998	0	0	2,600	2,014	555	1,500	2,047	521	1,946	0	210	0	0	0	0	169	262	11,828
1999	937	0	2,517	4,346	2,057	514	1,656	28	4,909	102	110	0	0	0	0	692	0	17,871
2000	0	0	3,959	4,147	1,645	495	2,140	738	6,034	243	198	0	0	442	0	2,654	2,808	25,507
2001	684	0	5,288	3,213	1,171	2,592	3,330	2,834	13,008	0	742	216	487	203	270	1,828	81	35,954
2002	560	0	4,245	3,495	4,534	2,072	1,899	375	19,953	846	440	386	497	546	328	3,709	107	43,997
2003	608	0	4,818	5,007	2,648	2,692	1,510	1,055	24,881	1,005	450	324	1,884	475	1,170	2,383	1,335	52,252
2004	590	0	5,892	1,992	4,363	2,123	1,920	1,565	32,230	1,038	807	1,430	988	929	1,366	5,067	111	62,417
2005	11,519	0	8,620	3,433	5,491	2,563	3,282	1,783	27,575	1,854	1,658	2,719	1,491	1,907	1,512	7,104	374	82,892
2006	14,836	0	9,741	5,199	4,182	3,274	3,093	1,212	20,724	3,189	4,373	4,574	3,239	1,413	2,486	3,340	554	85,437
2007	25,954	0	5,703	4,088	5,513	2,125	2,859	2,162	17,989	3,482	4,562	3,709	2,915	1,189	2,165	4,755	499	89,676
2008	20,435	0	8,525	5,512	4,962	3,018	2,607	1,488	18,646	2,817	3,075	3,014	3,184	1,818	2,601	10,982	361	93,051
2009	11,842	0	5,126	4,382	2,880	3,525	994	1,672	21,113	3,741	1,525	3,100	1,714	808	1,994	3,940	612	68,976
2010	21,001	0	3,823	4,049	9,352	2,100	2,058	2,556	25,710	2,314	6,249	1,760	350	1,878	2,806	6,269	485	92,765
2011	21,690	463	6,510	3,727	9,585	2,116	4,253	857	23,172	1,931	369	3,046	891	825	2,134	2,150	1,349	85,078
2012	9,913	975	9,615	1,697	6,996	1,666	1,977	1,419	17,914	2,122	1,967	2,719	2,099	654	272	1,099	519	61,950

4.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문제점

1) 적용 대상

●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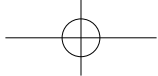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을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정하다보니 민간건축주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되어 왔음
- 그러나 외국은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비중이 높고 민간은 공공부문보다 약하게 적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건축 규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 제도 적용 안 됨

- 공원, 광장, 거리 등은 시민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민간 건축물보다 훨씬 더 높은 효용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따로, 공공미술제도 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문화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펼쳐온 공공미술 사업의 성과로 인해 공공미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은 많이 높아진 상태이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함
- 만약 공원, 광장, 거리 등을 조성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공공미술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수요를 촉진하면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미술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신도시 조성 등 도시계획시 제도 적용 한계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신도시 건설에 적용될 때 건물 단위로 조성되므로 도시 전체나 지구 단위의 조화를 고려한 조성이 어려움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10개 용도(표 2-4)의 건축물에만 적용되므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공공미술의 도입이 필요한 공원, 녹지, 수변공간 등과 공항, 여객터미널, 광장, 보행도로 등 대중교통체계에는 적용되지 않음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미술품이 설치되는 장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 내로 제한되어 미술작품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제한됨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작품별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는 심의하나 지구 관점 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지구별로 공공미술을 통해 특색 있는 도시미관을 창출하기가 어려움

2) 시행과정의 불공정성

● 특정 작가에 작품 집중

- 동일 지역 내에서 프로젝트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함. 신도시의 경우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한꺼번에 발주되면서 특정 작가가 십여 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작품의 질도 낮아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된 적이 있으나,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특정 작가가 프로젝트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실정

●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관행

-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관행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도덕적 정당성을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임
- 이러한 관행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건축주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임
- 시행과정의 담합과 비리로 인해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공공미술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 공공미술 기획대행자의 전문성 부족 및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 공공미술 기획대행자는 건축주에게 작가를 소개해 주는 기본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여러 장소에 여러 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종합적인 기획안을 만들어 작가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러한 공공미술 기획대행자는 예술적 기획력과 효율적인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일부 공공미술 기획대행자의 경우 이러한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미술 기획대행자의 업무 범위와 보수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일부 기획대행자의 경우 작가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

3) 행정관리의 한계

● 심의의 공정성 미흡 및 사후심의 한계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심의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다보니 심의위원 풀이 제한되어 심의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함
- 현재의 심의제도는 설치 장소와 작가가 이미 결정된 미술작품 계획을 사후 심의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수정을 요구하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가격심의를 하지만 극단적으로 터무니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가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한계

-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력 부족 때문에 작가로부터 사진자료를 받아 서류철을 해두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주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파손되거나 위치가 옮겨지거나 간판 등으로 가려지더라도 시정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III. 국고 또는 기금에 근거한 공공미술 지원제도

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이외의 공공미술 사업

● 공공미술은 재원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됨

- 하나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나 해외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 제도 같이 법에 의하여 공공미술의 재원이



조성되는 것임

- 다른 하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공공미술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문화부의 아트인시티 사업이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가 여기에 속함
- 이 장에서 말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외 공공미술 사업이란 후자를 말함
- 이러한 공공미술 사업은 2006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기존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보여주지 못했던 공공미술의 새로운 효용을 보여주었음
 - 공공미술 사업은 마을, 지하도, 정류장, 공원, 노인정 등 일반시민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일상 생활공간을 미술을 통해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들이 주류를 이루었음
 - 공공미술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공간의 미적 가치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공공미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이 장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주요 공공미술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사업경험을 반영하여 제도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2. 공공미술 사업 현황

1) 문화관광부 아트인시티 사업

● 목적

- 문화관광부 아트인시티 사업의 원래 사업명은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 임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미술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표6〉 아트인시티 사업(2006~2007)

사업명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Art in City)
주최	문화관광부
주관	공공미술추진위원회
기간	2006년~2007년
사업내용	기획공모사업, 일반공모사업, 지속사업
소요예산	27억원(복권기금)
사업지역	전국 31개소

● 조직 : 공공미술추진위원회

- 공공미술추진위원회는 8~9인으로 구성(위원장 김용익)
- 사무국은 약 5~7인으로 구성

● 사업 범위

- 소외지역 생활환경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취약 계층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의 공공 공간을 대상으로 하였음
- 기존의 공공미술이 작가 중심적이고 결과물 중심적인 한계를 벗어나 주민 참여형 공공미술을 지향하였음

● 사업 내용

- 사업은 크게 일반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 지속사업으로 구성하였음
- 일반공모사업은 소외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장소를 선정 한 후 작가를 선정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2006년에는 1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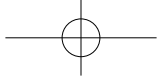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2007년에는 15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 기획공모사업은 위원회가 주제를 정한 후 작가를 선정하였음

● 2006년도는 저소득층 공간을 주제로 낙산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 2007년도는 노인 공간을 주제로 청주중앙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 지속사업은 2006년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가 지원하였음



〈표7〉아트인시티 사업 지원결과(2006~2007)

연도	구분	프로젝트 수	비고
2006년	기획공모사업	1	낙산프로젝트
	일반공모사업	10	
	소계	11	
2007년	기획공모사업	1	청주중앙공원 기획공모사업 - 노인들의 이유 있는 외출
	일반공모사업	15	
	지속사업	4	
	소계	20	
합계		31	

2)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 프로젝트

● 목적

-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바꾸기’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의 활성화, 생활 속 미술문화 향유여건 개선, 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표 3-8〉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명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바꾸기 사업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사)한국미술협회
기간	2009년 3월~12월
사업내용	우리동네 미술공간 만들기, 길섶 미술로 꾸미기, 공공미술 꽃 피우기
소요예산	20억원(복권기금)
사업지역	전국 21개소

● 조직 : 2009~2012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위원장 서성록)
- 사무국은 4명으로 구성

● 사업내용

- ‘우리동네 미술공간 만들기’ 사업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동체 공간을 미술공간으로 꾸미는 것으로 8개 팀이 선정되었음
- ‘길섶 미술로 꾸미기 사업’ 은 산책로나 골목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사업으로 9개 팀이 선정되었음
- 전자에는 5천만원, 후자에는 1억원씩 지원되어 모두 17 곳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였음
- ‘공공미술의 꽃피우기’ 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공공의 예술담당 만들기 에 2팀, 테마가 있는 공공미술에 2팀이 선정되었음

〈표 3-9〉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원결과

구분	프로젝트 수	비고
우리동네 미술공간 만들기	8	사업당 5천만원
길섶 미술로 꾸미기	9	사업당 1억원
공공미술의 꽃피우기	공공의 예술담당 만들기	2
	테마가 있는 공공미술	2
계	21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새장르 공공예술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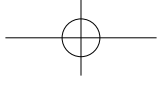
● 목적

- 하드웨어 중심의 공공미술에서 벗어나 공동체 예술, 행동주의 예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경향의 공공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 제고

● 조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분야

● 지원대상

-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은 다음과 같은 예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였음



- 공공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예술 프로젝트
- 문화적 소수자의 문화생산과 향유를 매개하는 예술 프로젝트
- 특정 장소나 사안에 개입하는 행동주의 예술 프로젝트
- 특정 공간을 활성화하는 예술 프로젝트

● 사업내용

- 2007년 13개 사업에 총 2억원을 지원하였음
- 2008년 11개 사업에 총 1억 8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음

〈표10〉 새장르 공공예술 지원결과(2007-2008)

연도	단체	사업명	지원금액
2007년	경계없는예술센터	용광로 2007 제1회 경계없는 예술축제 문래동	20,000
	공화국리라	귀향 : 군산내항의 역사적 생산자와 메모리얼 플레이스 만들기	12,000
	김종길	visible paradise -서산 낙원 프로젝트	15,000
	대구공간문화센터	삼덕동 마을 공동체작업장 프로젝트 2007	15,000
	문화연대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예술행동 매개 프로젝트	20,000
	박경주	셀러드 프로젝트	20,000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	벽 in open space at 1830 project	18,000
	시민문화네트워크티팟	배내골 예술마을 조성사업	10,000
	이제	산따의 투유투미 프로젝트	10,000
	작은소리열린공간	A carnival-시공간의 몸3	15,000
	전승일	코리안제노사이드	15,000
	플라잉시티	메이드 인 청계천- 청계천 디자인 개발 프로그램	20,000
	한국거리극연구소	거리극 세미나 및 워크샵(주제 : 예술공간으로서 거리)	10,000
2008년	소계		200,000
	(사)성서공동체FM	예술, 공공과 만나다	10,000
	007아트프로젝트	버스정류장 시즌3-Battle 展	8,000
	공화국리라	무한리필감성생산보급형 예술사업	18,000
	김준기	International Artist Festival 2008: Act in Seoul	16,000
	문화소통단체'숨'	아트팩토리 '숨' 프로젝트	25,000
	바루흐고틀립	라디오 스테이션 서울 Radio Station Seoul	8,000
	보통미술있다	성산 무지개마을 영상잔치	20,000
	사람과마을	도시 속 마을공동체 문화예술 창작 워크샵'행복한 하루하루'(가)	15,000
	상상공간기획소	2008 상상공간프로젝트-진안 상상센터 만들기	17,000
	시민문화네트워크티팟	'도시만과 농촌 마을의 서로 읽기' 展	18,000
	시흥문화운동공동체이공(異共)	청소년공공문화프로젝트 '00(공공)공간을 만나다'	15,000
	채은영	〈다른 공간 : 대안경제와 독립예술〉	15,000
	소계		18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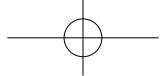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4) 서울특별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 목적

- 예술을 도시 디자인(urban design)의 문맥 속에 통합함으로써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 서울 창조
- 예술을 통해 서울시의 역사·문화·생태적 자원을 기념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창의성과 문화적 긍지의 강화
- 예술을 사회적 기제로 활용해 공공장소에 배려, 지속가능성, 쾌감(amenity) 등을 담음으로써 건강한 시민 공동체 건인
- 수준 높은 예술 창작을 통해 서울을 미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서울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서울시의 지역적, 세계적 이미지 향상

〈표11〉 도시갤러리 프로젝트(2007-2008)

사업명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공공미술위원회, 도시갤러리 추진단
기간	2007년~2008년
사업내용	일반공모사업, 지명·위촉경쟁사업
소요예산	2007년 44억원(시설비 32억원)
사업지역	39개소



● 조직 : 공공미술위원회와 도시갤러리 추진단

- 공공미술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문 및 심의 기능
- 도시갤러리 추진단은 7인으로 구성

[그림 3-1] 도시갤러리 미션도



● 사업내용

- 2007년 시범사업에서는 5개의 주제에 따라 25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 2008년 4개 주제에 따라 14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음
- 퍼블릭 사재를 통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기획과정에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치 과정에서도 시민 참여 통해서 시민의 작품이 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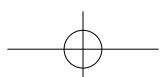
〈표 3-12〉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지원결과(2007-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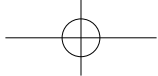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연도	주제	프로젝트 수
2007년	공공의 기억과 흔적	2
	인간과 생태	3
	예술과 공동체	4
	인프라 스케이프	6
	장소성 강화	6
	장소성 확장	4
	소계	25
2008년	처소가 아름다운 도시, 서울	5
	인간적인 도시, 서울	4
	참여하는 창의 도시, 서울	4
	인프라-스케이프(infra-scape), 서울	1
	소계	14
합계		39

5) 안양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 목적

- 안양시는 아름다운 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양 아트시티 21’ 시책을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 이하 APAP)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건축, 조경, 미술 등이 결합된 공공예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5년부터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연혁

- 2004년 12월 안양시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5년 11월 APAP 2005 개최(예술감독 이영철)
- 2006년 12월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 2007년 10월 APAP 2007 개최(예술감독 김성원)
- 2009년 2월 APAP 2010 (예술감독 박경)

● 조직 : 안양공공예술재단

- 재단법인으로 2007년 12월에 설립되었음
-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15명), 감사로 구성됨
-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집행위원(7명)으로 구성됨
- 사무국은 사무국장, 예술감독, 총무팀, 예술팀, 공공디자인팀, 기술지원팀으로 구성됨

● 추진사업

-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짐
- 격년으로 안양 공공 예술프로젝트(APAP) 개최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 안양시가 위탁하는 공공예술사업 추진 등

[그림] 안양시 공공예술재단 조직도



●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APAP)

- 2005년부터 격년으로 열고 있음. 비엔날레처럼 예술감독을 선정하고 국내외 작가를 초청하여 안양시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수행
- 제 1 회 APAP 2005에서는 ‘파라다이스 안양’이라는 주제로 안양유원지를 예술공원으로 조성
- 제 2 회 APAP 2007에서는 ‘전유, 재생, 전환’이라는 주제로 안양 평촌 신도시와 주거지역에서 가로시설물을 공공예술화하고 도심형 공공예술 프로젝트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도심 내부로 공공예술을 확대하였음

〈표 3-9〉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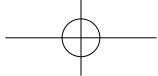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구분	예술감독	주제	장소
APAP 2005	이영철	파라다이스 안양	안양유원지 아트밸리
APAP 2007	김성원	전유, 재생, 전환	안양 평촌 신도시와 주거지역

6)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 목적

- 성남시 5대 역점과제 중 하나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음

● 조직 : 성남문화재단



● 사업내용

- 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상가 등 5개 영역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 2006년도에는 태평동 골목길을 벽화방식으로 추진
- 2007년도에는 아파트와 공단 지역 2곳을 지정하여 추진함. 성남은행2동 주공아파트에서 아파트문화공동체 실험
- 2008년은 시장과 상가를 결합해서 사업추진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상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태평동 공부방, 은행동 주공아파트 주민프로그램, 상대원 시장 다방 등 3곳은 연속 지원

〈표 3-9〉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원결과

연도	사업명	장소	예술가
2006	예술태평동에서 노닐다태평동 Art Dream	성남시 태평 4동	성남거주 예술가
2007	풀장환상	성남 은행주공 아파트	박찬국
	공단공단 예술공단	상대원 공단	박찬국
2008	신나는 상대원 시장	성남 상대원 1동	도시의 빛과 색(공공시각미술) 큰돌마루(공공컨텐츠예술) 바셀린프로젝트(인터넷라디오방송)

3. 공공미술 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에 공공미술을 도입

- 공공미술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미술을 접할 수 있게 한 것임
- 작가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식 덕분에 낙후되고 불편했던 공간들이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음

● 지역재생 방법으로서 공공미술의 가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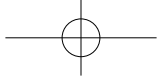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공공미술 사업에서는 대부분 낙후된 기존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지역재생 방법으로서 공공미술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공공미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미술 사업들이 늘어나게 되었음

● 주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공공미술 사업은 공간 조성을 중시하는 사업이든 공동체 복원을 중시하는 사업이든 모두 주민 참여를 중요한 방법론으로 삼았음
- 작가 중심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함께 공공미술을 조성할 경우 조성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이러한 경험은 그동안 건축물 미술품 제도에 의하여 조성된 공공미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향후 발전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임

〈표〉 주요 공공미술사업 비교

구분	아트인시티 2007	도시갤러리 2007	APAP 2007
목 적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	문화도시 서울 만들기	안양시 문화환경 개선
주 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안양시
주 최	공공미술추진위원회	공공미술위원회 도시갤러리 추진단	안양공공예술재단 예술감독
예 산	15억(복권기금)	44억(시설비 32억)	41억(민간위탁금)
프로젝트 수	16개	30개	61개
공공미술 지향	주민 참여형 공공미술	장소형 공공미술 주민 참여형 공공미술	장소형 공공미술
장소 선정방법	시민에게 장소 공모	전문가 연구 후 공공미술위원회 확정	공공미술위원회 지정
작가 선정방법	일반공모	일반공모	예술감독 선정
	국내 작가 중심	지명경쟁 국내 작가 중심	해외작가 중심(국내 10~20%)
사업구성	기획공모사업 일반공모 사업 지속사업	시 자체 사업 협력사업	시 자체 사업 협력사업(공원 조성 사업) 시민후원 프로그램



2) 한계

● 전문성이 없는 공공미술 관리시스템

- 장소협이나 사업추진 과정 등 다양한 행정지원 문제에 대한 결정이 전문가의 의견보다 행정의 편의로 이루어지는 만큼, 행정과 공공미술 큐레이터십의 유기적인 결합이 중요함
- 행정체계와 큐레이터십의 결합이 실패하면 대상지의 사업 파트너십(각 구청/시설 운영 주체) 형성이 어려워짐
- 이로 인해서 적극적인 호응 활용도가 저하, 혹은 소극적 대상자의 설득이 미비하게 되고 작품이 설치되는 구청이나 동의 협조도 얻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시카고의 경우 한 명의 공공미술 큐레이터가 1년에 2~3작품을 시민설명부터 작품설치까지 담당하며 경관에 대한 이해, 도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 장소 연구, 행동 연구, 창조적 행정 기획, 큐레이터 페이퍼 기술 능력, 매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미술관 큐레이터와 다른 매개형 큐레이터로 활약함
- 이처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행정과 예술을 매개하고, 예술가와 시민을 매개하고, 전문가와 예술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절실함

● 조직과 예산의 안정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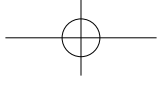
- 법제도나 시·군 조례에 기반한 조직이나 재원이 기금형태가 아니기에 안정적 공공미술 정책에 기반한 사업계획이 어려운 현실
- 경직된 예산 관리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고, 시민 참여를 구성할 수 있는 예산 구성도 어려워짐
-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심의 과정이 있었는지, 심의 의견이 나뉘었다면 어떻게 나뉘었는지 공개를 하도록 규정. 심의위원회 체계로 한다면 심의위원은 11인 이하로 하고, 2~3년 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 큐레이터가 추천·위촉의 방법을 통해서 공공미술 작업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작품이 놓이는 커뮤니티가 작품을 선정하게 하는 방법, 대단위 계기성 사업의 경우에는 목적성 위원회를 두고 기획□심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함

● 전반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부재

- 공공미술 사업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공간을 작가가 선정하여 조성하게 되는데 사후관리 주체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조성 후 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대부분의 예산을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밀레니엄 파크나 배터리 파크에서 보듯, 도시계획-문화적 개발플랜-아트플랜-건축-디자인-경관예술-조경-디자인-공공미술 작품이 하나의 공간성을 만드는 만큼 예산의 확보는 필수적 조건임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기반이 되는 지원사업 필요

-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공미술 아카이브 구축, 모델 전시 등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
- 공공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 이제는 다양한 공공적 토대를 만들어 공공미술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임



Ⅳ. 공공미술 정책의 실천과제

1. 공공미술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 미술가의 창조적 상상력으로 공공장소에 생명력을 불어넣자!

- 우리는 매일 엄청난 시각적 공해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공해인 줄 모르고 지냄. 복잡한 거리, 황량한 공원, 차라리 아무것도 놓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 각종 조형물 등. 어느 한 곳 차에서 내려 여유 있게 걷고 싶다가도 아이와 함께 뛰어놀고 싶은 곳을 찾기가 어려움
- 공공미술은 미술관이나 화랑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유통되는 미술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오늘날 공공미술은 비인간적인 도시환경에 대한 문화적 치유와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의 주요한 방법으로 인식. 공공미술은 미술가의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이러한 지역의 공간환경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대안

● 공공미술의 일반적 정의

- 공공미술이란 일반적으로 공공에게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미술품을 말함
- 우리나라에서 공공미술은 담장에 그려놓은 벽화나 건물 앞에 설치해 놓은 불품없는 동상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공공미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것
- 현대의 공공미술은 공원이나 거리에 예술적 감수성을 부여하고, 침체되거나 쇠락한 지역에 활기를 가져다주며, 도시 전체에 창조적 상상력을 불어넣는 미술가들의 제반 활동을 의미
- 공공미술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시장의 흰 벽면을 넘어 미술가가 도시공간과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공간예술

● 공공미술의 개념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

-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
- 도시계획 속의 미술(Art in Urban Design)
-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 또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공공미술의 개념과 제도적 변화

구 분	특 징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 미술작품을 통한 정부 건물의 미적 가치 제고 ○ 프랑스 1%법(1951년),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CSA)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 (1963년) ○ 작품경향 : 순수미술 위주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s)	○ 공원, 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공간 활성화 ○ 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그램' (1967년), 자치단체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 ○ 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됨 - 초기에는 스튜디오 작품을 크기만 키워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플립아트(plop art)라는 비난을 받음 - 점차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미술로 변화되면서 공공미술은 미술과 삶의 결합을 지향하는 미술로서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전시되는 미술과 달라지게 되었음
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	○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공공공간의 인간화와 네트워크화 ○ 도시디자인팀에 미술가 참여가 제도화됨.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종합계획(public art master plan) 수립. 기금제(pooling system)가 도입됨 ○ 라데팡스,바르셀로나,필라델피아,달라스,로스엔젤레스 등에서 시행하여 문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 ○ 미술품 이외에 미술가가 디자인한 가로시설물, 공원,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공공미술 영역이 확장됨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 미술을 통한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 문화공동체 형성 ○ 수잔 레이시(Susan Lacy)는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예술"로 정의 ○ 1970년대 미국 주민벽화운동(Community Mural)과 1980년대 시카고 공공미술 프로그램(Chicago Public Art Program)에서 시작 ○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특히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요소 ○ 시민에 대한 문화교육적 효과를 겨냥한 비디오 제작, 퍼포먼스, 미술공방 운영, 정원가꾸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장르도 시각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영화, 비디오, 공연 등으로까지 확장



● 공공장소 속의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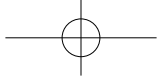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공공미술의 가장 초기 개념은 '공공건물의 미적 장식'이었다. 뉴딜 시대 미술가 실업구제 프로그램에서도 공공미술은 연방정부 건물에 조각이나 벽화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
- 공공미술 개념의 2 단계는 '공공 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s).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에 근거. 1967년 미국 국립예술진흥기금 (NEA)은 자치단체가 지역환경 개선에 공공미술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장소 속의 미술'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치단체나 민간 공공미술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 여기에서는 설치장소 개념이 공공건물에서 공공장소로 보다 확대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 공공장소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민공원이나 광장 같은 곳에 벽화나 조각을 도입
- 공공미술 개념의 3 단계는 '도시활성화 수단으로서의 미술' (Art as urban revitalization). 이 단계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개발이나 도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을 도시계획과정에 결합하기 시작. 이러한 공공미술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제 (pooling system)가 도입되었으며 도로, 댐, 발전소 등 공공건설비용의 1%를 기금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원을 마련
- 공공미술은 공공건물에서 공공장소로 다시 도시 전체로 확대. 그러나 이러한 개념 하에 조성된 공공미술은 기념비적이고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문가 중심적이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보다는 도시미관이나 경관 중심적이라는 특성

●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으며, 미술과 대중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공공미술과 차이
-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오늘날 미술비평가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의 공공미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주민변화운동과 1980년대 시카고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 이러한 흐름의 공공미술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공미술' (community-based public art)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심을 갖는 미술' (art in public interest)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다가, 미술이론가 수잔 레이시 (Suzanne Lacy)가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이라고 명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명칭이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
-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예술"이라고 정의
-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주제, 매체, 그리고 제작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공공미술과 차이. 주제는 대개 미술가와 주민이 공동으로 결정하며 미술가의 예술적 관심이나 도시미관상의 관심보다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이슈에 의해서 결정되. 매체는 옥외조각이나 벽화 같은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나 미디어아트 같은 실험적이고 비전통적인 매체도 자주 사용. 제작방식은 미술가와 주민이 기획,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정이 보장

●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 이러한 공공미술의 개념적 변화를 살펴보면,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제도의 이념적 지향점 변화
- 이러한 변화를 캐시 헬브라이히 (Cathy Halbreich)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요약
- "우리는 20년 사이에 강조점이 (옥외광장의 규모에 맞도록) 기념비적으로 만들어진 스튜디오 작품으로부터 문화적 유물들을 담을 수 있는 시설물들로, 일군의 예술가들에게 도시의 새로운 탄생을 기념하는 조각작품을 의뢰하는 데에서 씨애틀과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들이 - 상호학문적인 디자인팀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 공공장소가 보다 친근하고 사회적인 장소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예술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념비적인 낯선덩어리로부터 점심시간에 왕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리의 퍼포먼스들과 행사들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Art Extension Service & Visual Art Program of NEA, Going Public: A Field Guide to Development in Art in Public Places, 1988, pp.9-10



2. 공공미술 도입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공공장소들

1)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보행자’의 관점에서 도로, 가로, 교통시설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사업

● 표지판·현수막

- 가로길 및 건물번호판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 도시 인덱스 작업 (건물 외관 포장 또는 인상적 조형물 부착)
- 문화 깃발 디자인 (색깔 + 정보 + 디자인)
- 동네 안내판 만들기

● 가로시설물

- 문화 키오스크 설치
- 도시 보행인도변 전력함 색깔입히기
- 쓰레기 수거대
- 공사 가림막 디자인

● 도시구조물

- 고가 다리 주변 리모델링
- 방음벽, 석축, 옹벽 디자인

● 지하철·지하도

- 지하철 출입구 주변 자전거 한평공원 + 문화 알림이 박스 디자인
-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등의 환경개선사업

● 가로 주변 건축물 및 기념물

- 기존의 낡은 공공미술 (동상, 기념비, 미술장식 등) 보수
- 시간적인 기념비 작업 (공공적 주제나 기념일 관련 장소와 시설 조형)
- 지역적 특색이 강한 건물 또는 기념물에 대한 조명디자인

2) 주민 휴식공간 가꾸기

‘주민’의 관점에서 생활공간 주변에 놀이터, 근린공원, 쌈지공원, 광장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어린이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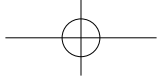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
- 놀이터 환경개선 및 친환경물적인 놀이기구 탈피
- 감각체험 문화놀이터 만들기

● 근린공원·쌈지공원·광장

- 주민참여형 한평공원 만들기사업
- 쌈지공원 리모델링
- 동네 짜투리땅 작은 정원 만들기
- 소리조각공원
- 活生광장 (야외 원형 무대 + 인라인 스케이트장 + 상징 조형물 설치)

● 수변공간(강,호수 등)

- 레인보우 로드 (Rainbow Road, 천변)



● 기타

- 담장 허물기 운동 (대구)
- 골목길 가꾸기
- 재활용 디자인 공방 운영

3) 이용자를 배려한 공공시설 만들기

**‘주민’의 관점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들을 보다 아름답고
소통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

● 공공청사

- 시군구청 담장 허물기와 주민 휴식공원 조성
- 구호성 현수막 교체

● 초 · 중 · 고등학교

- 초등학교 환경 문화리모델링 (담장 / 교문 / 놀이터 / 지역사회개방형시설)
- 초등학교 권위주의적인 도상 해체 작업

● 문화시설

- 도서관 속 미술관 (Gallery in Library)

4) 관광지 환경디자인

**‘관광객’의 관점에서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공공미술을 결합하여
문화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

●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변 공공미술 프로젝트

● 로스앤젤레스 도심 공공미술 프로젝트

● 일본 파레타치카와 공공미술 프로젝트

● 일본 롯본기 힐즈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5)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 만들기

‘소외계층’의 관점에서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장애인

- 문화 무장애공간 만들기 사업 (장애 · 비장애 통합형 놀이터 만들기)

● 외국인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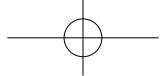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국경 없는 거리조성)
- 외국인 노동자 보호소 환경 개선

● 혐오시설

- 영적공간 (공동묘지 , 화장장 등) 의 문화공간화 시범사업

● 기 타

- 교도소 등 교정시설
- 노인의탁시설
- 미혼모 보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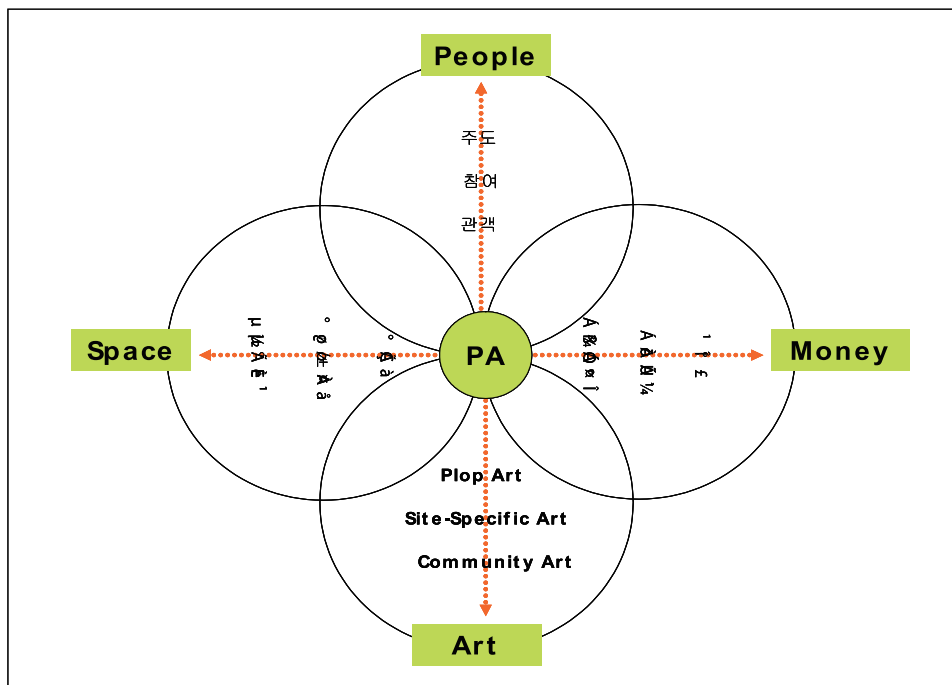


3. 효과적인 공공미술 실행방안

● 공공미술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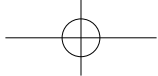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공공미술의 구성요소는 크게 4 가지
- 공공장소 : 건축물에서 도시계획까지 범위 가능
- 지역주민과 방문객 :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 조성비용 : 초기단계에서 공공의 참여 중요
- 미술 : 장소 특수성 고려에서 이용자 특수성 고려로 발전

〈 공공미술의 구성요소 〉



● 효과적인 공공미술 지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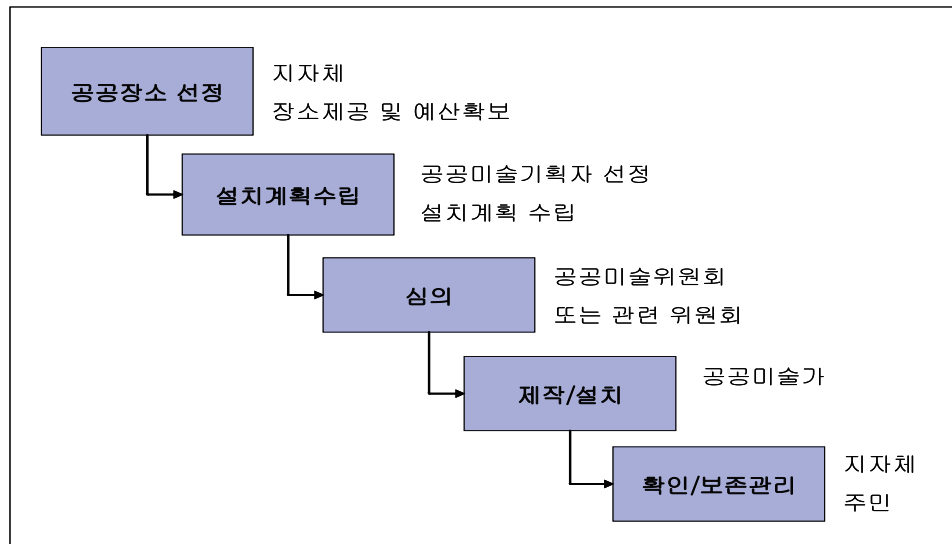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위탁	• 공공건물, 공공장소와 결합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 문화지구, 문화시설, 지역축제와 결합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 지역 재개발 사업과 결합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 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 효과적인 공공미술 프로세스

- 1 단계 : 공공장소 선정 및 예산확보
- 2 단계 : 공공미술기획자 선정 및 설치계획 수립
- 3 단계 : 심의 (공공미술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
- 4 단계 : 미술가에 의한 제작 및 설치
- 5 단계 : 확인 및 보존관리

〈 효과적인 공공미술 프로세스 〉



● 공공미술의 성패는 미술가, 주민, 공공공간과의 교감

- 전시장에서 미술가는 공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공공장소에 조성되는 공공미술은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과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야. 공공미술은 전시장의 흰 벽면을 넘어 미술가가 다양한 시각적 장애물이 난무하는 도시공간과 지친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공간예술이기 때문. 이런 맥락에서 공공미술의 성패는 미술가, 주민, 공공공간과의 교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공공장소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할권 내에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청계천 복원사업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 잊었던 꿈, 낭만, 활기 같은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공공미술을 통해 창출할 수 있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심혜화 | 안양문화예술재단

Anyang Public Art Project



추진배경



연혁

2003. 4.	비산조각공원 계획 수립
2003. 6.	비산조각공원추진위원회 구성
2003.12~2004.4.	비산조각공원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
2004.11.	공공예술팀 신설(문화예술과)
2004.12.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예술감독 선임(이영철)
2005.2.	사무국 개설
2005.2.~11.	사업추진
2005.11.5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2005)
2006.3.	예술도시기획단 신설
2006.4.	예술감독 선임(김성원)
2007.1.	안양공공예술재단 출범
2007.10.20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2007)
2009.4.	예술감독 선임(박 경)
2009.6.	1호선 관악역, 안양예술공원역 부기명 표기
2010.10.2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2010)
2011.3.	"오픈스쿨" 뉴욕건축가협회 건축부분 우수상 수상
2011.7.1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통합
2012.7.	예술감독 선임(백지숙)
2013.10.(예정)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2013)

사업현황

사업명	APAP2005	APAP2007	APAP2010	APAP2013
개 막	2005.11. 5	2007.10.20	2010.10. 2	2013.10.26
장 소	안양예술공원	평촌신도시 일원	학운공원 등	안양예술공원 등
예 술 감독	이영철	김성원	박 경	백지숙
주 제	"역동적 균형"	"전유, 재생, 전환"	"재동네 : 열린도시 안에서"	"Public Story"
참여작가	73명	45명	31팀	10~15팀(예정)
작 품 수	97점 (영구 작품 52)	45점 (영구 작품 36)	22점 (영구 작품 4)	15점(예정) (영구 작품 4)
작 품 제 작 비	70억원	37억원	31억원	20억원(예정)



APAP2005 낙후된 지역의 도시개발과정에 개입



APAP2007 개발이 완료된 도심 공간에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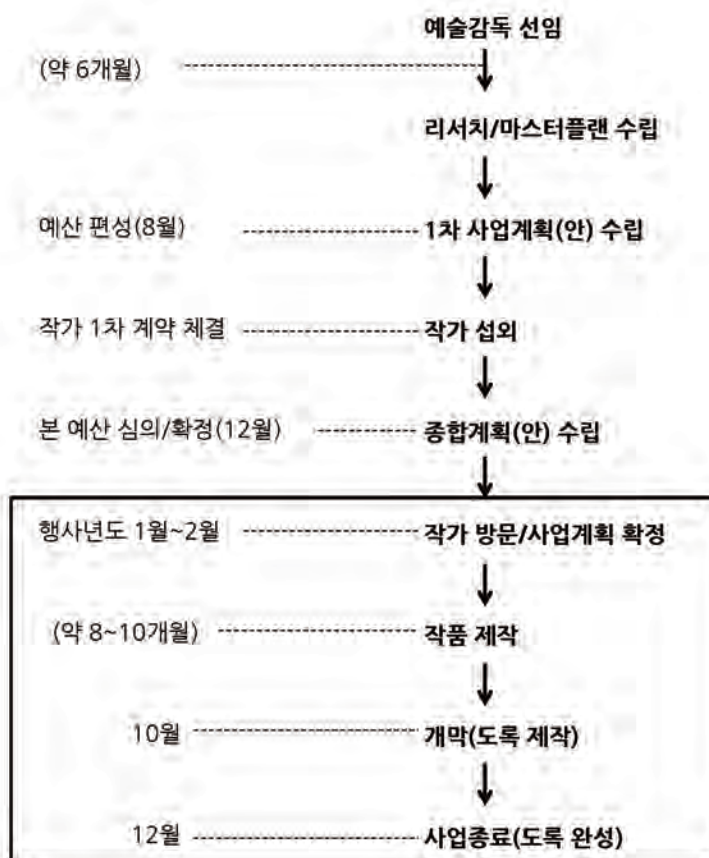


APAP2010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커뮤니티와 협업



APAP2013 남아있는 작품과 안양의 관계 재설정

업무프로세스





제1회

안양 공공
예술프로젝트
APAP2005



기획 의도 및 주요 컨셉

[도시개발과 공공예술]

“... 환경 구조를 심의기준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은 형태, 기능, 장식성, 미관화, 주변과의 조화 등이다. 거리의 조형물들, 조각 공원들이 이런 기준에 따라 여기 저기에 놓이고, 몇몇 전문 예술가들은 아예 전문 사업가로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술작품은 더 이상 명사/물건이 아니라 동사/과정이기를 원한다....역사적 흔적이 사라져가는, 그러나 그 문맥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유원지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신선하고 쾌적한 장소, 오래 머물고 싶고, 많이 걷고 싶고, 걸으며 생각하면서 ‘정소의 감각’ 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다용도의 유희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영철 (APAP2005 예술감독)

[절묘한 거리감]

“...도시가 고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동안, 도시에서 개인과 가족의 삶이 축적되어 전수되고 비전과 활력이 배양되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그러나 도시와 교외 지역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 기쁨과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APAP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며, 안양이라는 장소의 고유한 매력과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작가, 디자이너, 건축가들을 선별하면서 우리가 고수했던 기준이기도 하다...자연 환경에서 오브제나 구조체를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거리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사람들은 숲을 거닐면서 발에 닿는 땅의 촉감과 바람의 살랑거림,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전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느끼고 경험한다. 사람들이 다음 작품을 기대하면서 오갈 수 있을만큼 작품 간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작품 수가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APAP는 절묘한 거리 감각을 보여 준다 ...”

프람 기타가와(에치코 추마리 아트트리엔날레 예술감독)

[창조성과 도시계획]

“...미리 개발의 원칙을 결정한 다음에 지역 커뮤니티에 그저 입발린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재활성화와 개발 계획이 문화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혁신적 프로세스, 적절한 중개 활동, 그리고 계획의 시작부터 참여한 급진적이고 창조적인 실천가들이 제공하는 예기치 못한 잠재력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상상적이고 혁신적이며 사례별로 특화된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 다중분과적 방식으로 작업에 참가할 때 여러 개인과 집단은 종종 프로세스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불분명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고정된 역할과 관습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놀랍고 혁신적인 최상의 성과를 내게 된다.

루시 머스그레이브(런던 제너럴 퍼블릭 에이전시 대표)



APAP2005 -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대상지역 : 안양유원지

- 주 제 : 역동적 균형 Tipping the Balan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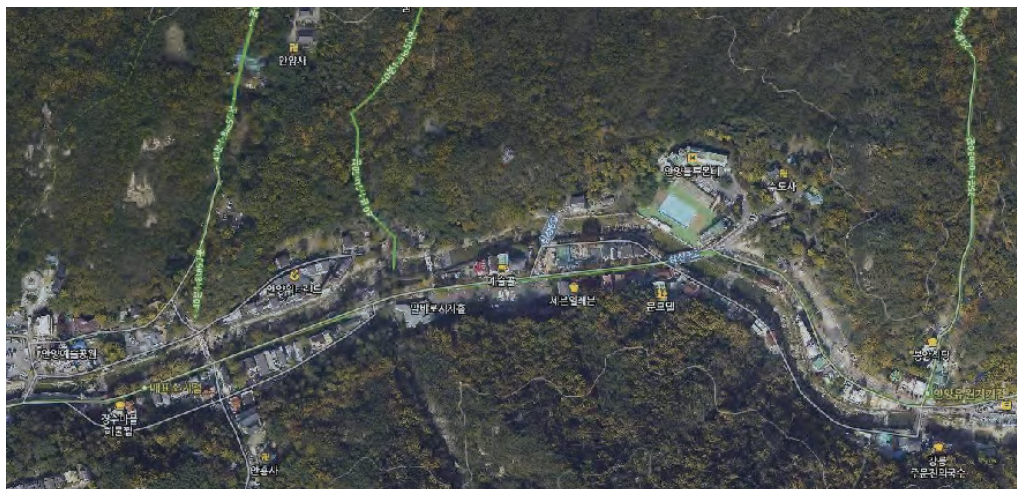
도시 개발 계획의 종합적인 프레임 안에서 건축, 조경, 예술, 디자인의 창조적 결합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구 및 장치의 시급함을 부각시킴. 기성 세대들에게는 잊혀져 가는 장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꿈과 자유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조성함.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인문적 특이성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인기를 주입시키는 기능을 수행코자 함. 생존경쟁이 치열한 장소에서 일시 정지와 휴식의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기 간 : 2005.11.5 _ 현재

- 예술감독 : 이영철 Youngchul Lee

- 커미셔너 : 프람 기타가와 Fram Kitagawa

- 작 품 수 : 97점(영구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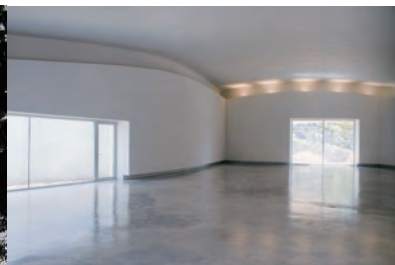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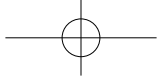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1평 타워]

디디에르 피우자 파우스티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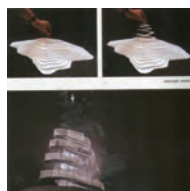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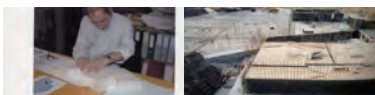
[Misfit Tower]

Didier Fiuza Fausti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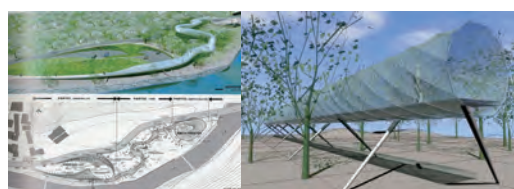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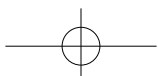
[알바로 시자홀]
알바로 시자
[Alvaro Siza Hall]
Alvaro Siza(Portug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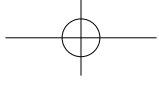


[안양 전망대]
MVRDV
[Anyang Peak]
MVRDV(Netherlands)



[선으로된 나무 위의 집]
비토 아콘치
[Linear Building up in the Trees]
- On Going
Vito Acconci(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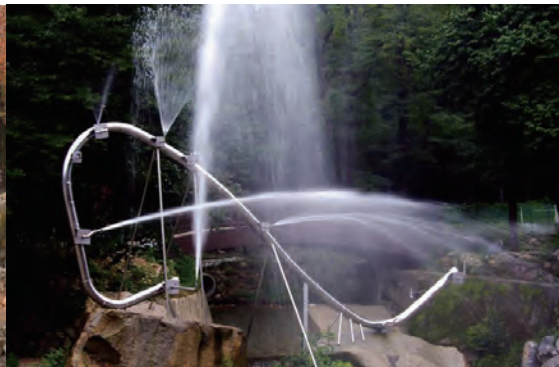




【돌꽃】
최정화
[Stone Flower]
Choi Jeong 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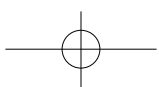
【오징어 정거장】
엘라스티코
[Architeutis]
ELAST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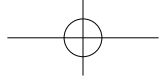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물고기 분수】
호노레 도
[The Tears of Fish
Fall in the River]
Honore do



【리. 볼. 버.】
허만 마이어 노이슈타트
[Re. Vol. Ver.]
Hermann Maier Neustadt





[빛의 집]
볼프강 빈터, 베르톨트 헤르베르트
[House of Light]
W. Winter, B. Horbelt



[낮잠데크]
클립
[Nap Deck]
CLIP



[소풍벤치]
안드레아 브란치
[Picnic Bench]
Andrea Branzi



[스트리트 퍼니처]
프란체스코 트라부코
[Street Furniture]
Francesco Trabuc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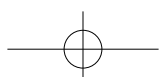
[잔디 휴가중]
도쿄 피크닉 클럽
[Grass on Vacation]
Tokyo Picnic Club



[춤추는 부처]
질베르 카티
[Dancing Buddah]
Gilert Ca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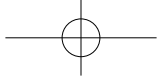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먼 곳을 바라보는 소녀,
복사집 딸래미]
이환권
[Boy and Girl]
Yi Hwan Kwon





[거울 미로]
예페 하인(덴마크)
[3-dimensional mirror labyrinth]
Jeppe Hein(Denmark)



제2회

안양 공공 예술프로젝트 APAP2007



기획 의도 및 주요 컨셉

[아트 앤 더 시티]

”...공공미술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생각들은 각기 다르다. 그만큼 다양한 해석과 그에 따른 목적들을 갖고 있는 것이 공공미술이기도 하다. 공공미술에서 ‘공공성’이란 개념에 포함된 공동체적 성격은 사회문제나 공공적 관심을 일반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공공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번 APAP에서 공공성을 찾는다면 그건 결국 그 결과에 대한 향유에 관한 문제이며,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있다...안양시민은 그 어느 도시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예술 자산을 갖게 되었으며, 이 작품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다...이 작품들은 안양시민들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그들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만들며 더욱 흥미로운 도시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김성원(APAP2007 예술감독)

[밝은 미래를 위한 밝은 조각]

“...스타일은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공공미술을 다룰 때, 만약 70년대의 전설적인 장소-특정적 작품들을 우리의 궁극적인 참조로 할 경우, 이것은 퇴보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컨텍스트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진정한 스타일은(삼차원적이며, 다양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관점을 제시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자립적 제안 등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조각과 (내적 인식,컬함, 다양한 색조, 풍부한 재료 등과 관계하는) 초현대적인 포즈 사이에 존재합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조각의 주된 관객은 바로 통행인입니다...”

김승덕(르 콩소르티움)

[파워 처치&머슬 머신-안양, 돌아오지 않는 도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조각들이었다. 텍스트 베이스 된 작업이나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 보다는 삼차원적인 작품이 필요했다. 우리는 매일 식료품상, 술집, 무당집, 사무실, 학교, 러브호텔, 꽃가게, 도서관, 세차장, 골프연습장, 시청에 가는 개인들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난다. 이들은 예술에 대한 조예가 전혀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내놓든 그것을 사랑이나 증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한국 시민들이다. 대중주의는 아니다. 그저 도심에서 진짜로 즐겁게 판을 벌이고자 꺼지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한 감각이면 된다...”

프랭크 고트로(르 콩소르티움)

APAP2007 -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대상지역 : 평촌 신도시 일대

- 주 제 : 전유, 재생, 전환 Appropriate, Regenerate, Transform

평촌에 거주하는 지역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도시 맥락을 현대 예술을 통해 재발견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고안하고자 한 프로젝트. 작가와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평촌에 대한 공공예술의 전유와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일상과 환경을 재생하고, 기존의 도시 맥락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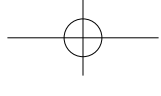
- 기 간 : 2007.10.20 _ 현재

- 예술감독 : 김성원 Sung Won Kim

- 커미셔너 : 김승덕, 프랭크 고트로 Seungduk Kim, Franck Gauther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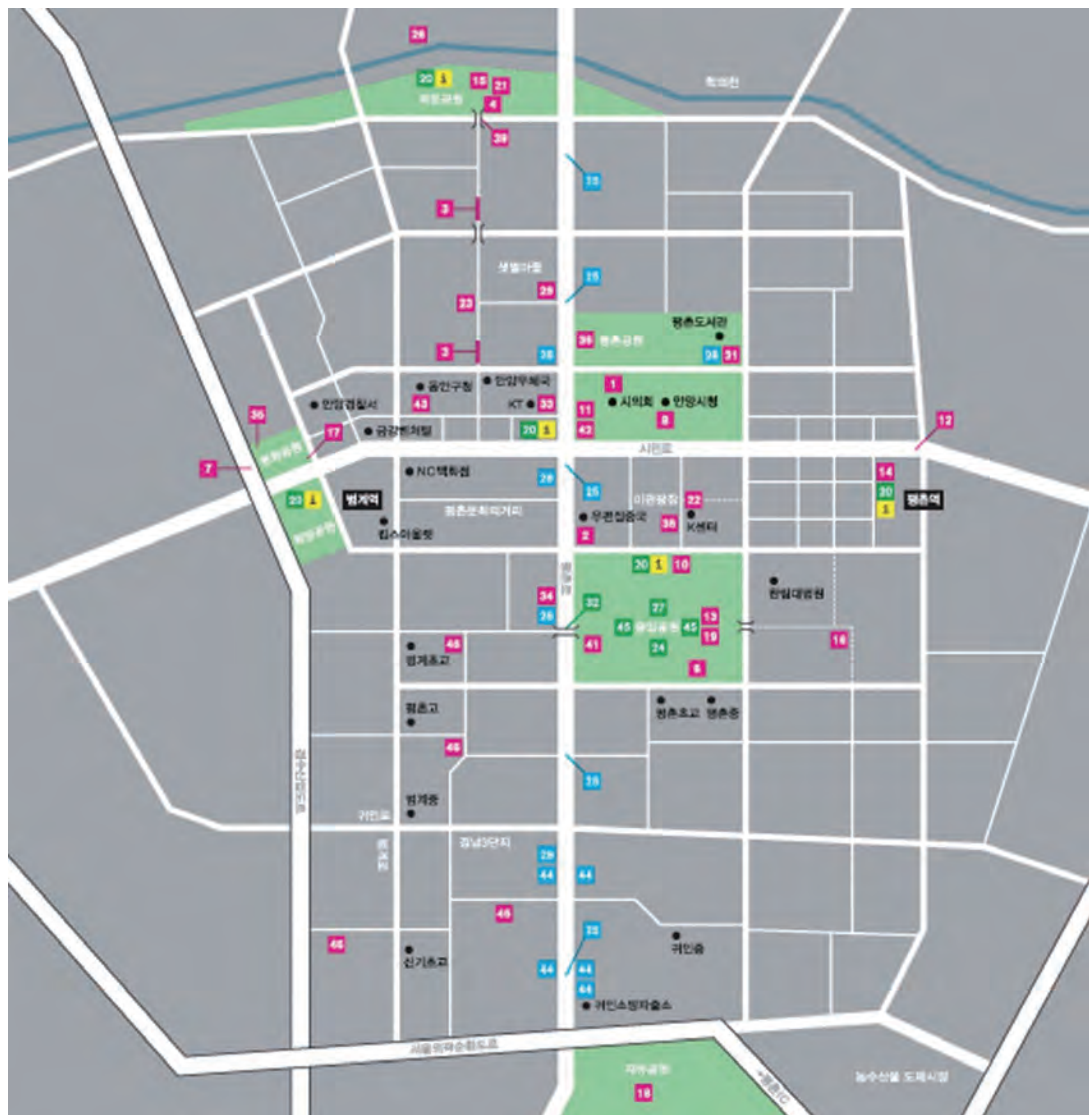
- 작 품 수 : 45점(영구작품 36점, 일시작품 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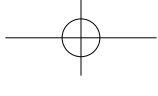
- 참여작가 : 45명(국내 21명, 국외 24명)



APAP2007 로고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APAP2007 로고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디자이너 슬기와 민은 버려진 사물을 이용해
새로운 타이포그래피를 만드는 폴 엘리먼
(Paul Elliman)과의 협업을 통해 단수가 아닌
복수의 APAP2007 로고타입을 제안했다.
살아있는 도시가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표상되지 않듯, APAP2007 로고타입도 도시
안양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들이 창조되기를 기대한다. 용도가 다해
도시에 버려진 사물들로 만들어진 알파벳은,
디자이너의 조형적 실험을 통해 APAP2007의
개념과 의도를 전달하는 시각 매체로 전환된다.
사물과 언어, 대상과 표상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APAP2007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는,
도시의 삶과 예술적 삶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APAP2007의 정신을 함축한다.





[비토]
실비 플뢰리
스테인레스 스틸/지름5m
*시청 앞 잔디
[Vitteaux]
Sylvie Fle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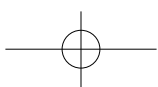
[헬로, 안양 위드 러브]
야요이 쿠사마
*평화공원
[Hello, Anyang with Love]
Yayoi Kus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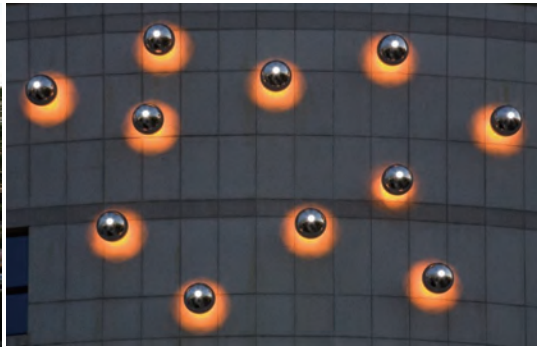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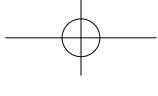


[도시파노라마를 위한 스트리트
퍼니처]
가브리엘 레스터
*K 센터 앞 보행자도로
[Urban Panoptic Furniture]
Gabriel Lester



[달]
이수경
*학운공원
[The Moon]
Yee sook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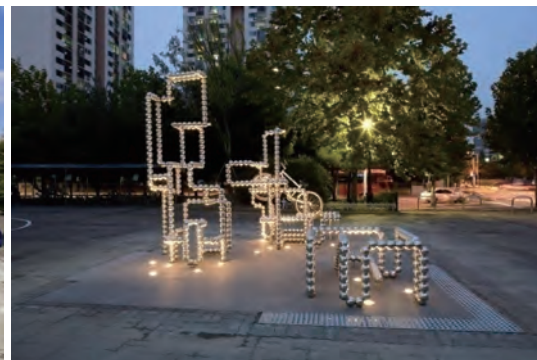




[무제]
존 암리더
*시의회청사 벽면
[Untitled]
John Armle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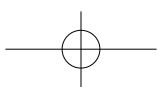
[사라진 공깃돌을 찾아서]
양혜규
*어린이 소공원 9, 11, 15, 17호
[Looking for a Lost Pebble]
Haegue Yang
*Children' s Park #9, 11, 15 and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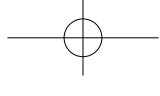


[자전거 스테이션]
오인환
*평촌도서관
[Bike Station]
Inhwan Oh



[자전거 스테이션]
오인환
*평촌도서관
[Bike Station]
Inhwan 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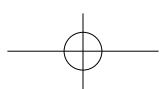
[시간의 파수꾼]
글로리아 프리드만
*중앙공원 중앙입구
[Time Keeper]
Gloria Friedmann
*Central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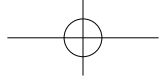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루킹 타워]
게리 웹
*시청 사거리
[Looking Tower]
Garry Webb



[오색찬란한 하늘 아래 산책길]
다니엘 뷔렌
*샛별 1로
[Passages Under a Colored Sky]
Daniel Buren
*Saetbyeol 1-ro





[현 화]
안젤라 블록
*시청 사거리
Floral Tribute
Angela Bulloch



[벙커 - M. 바흐친]
이 불
*중앙공원
Bunker-M. Bakhtin
Lee Bul



[키오스크]
마크 카미유 샤모비츠
*학운공원
KIOSK
Marc-Camille Chaimowicz



[리즘]
신형섭
*희성초교 앞 육교
Rhizome
Hyungsub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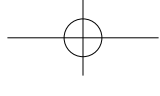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 나의 안양]
김홍석
*평촌 이마트 앞 사거리 중앙분리대
[My Anyang, the City of
Beauty and Happiness]
Gimhongsok



[무제 2007]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untitled 2007(tea house)]
Rirkrit Tiravanija
*Central Park



[M0 프로젝트- 타임캡슐]
나카무라 마사토
[M0 Project]
Masato Nakamura(Japan)



제3회

안양 공공 예술프로젝트 APAP2010

기획 의도 및 주요 컨셉



[새 동네: 열린 도시 안에서]

“...APAP2010은 도시경관에 대한 두 가지 아이디어에 기반한다. 첫째는 도시의 인위적인 생태는 자연생태를 반영한다는 도시 생태론이고, 둘째는 예술이 결과보다 예술적 실천 과정을 통해 사람들과 협력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다학문적, 연구 중심, 과정 지향적인 대중과의 협력이라는 공공문화론의 관점이다. APAP2010은 이 두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예술프로젝트를 시도한다...다양한 시민과 지역사회를 연계시키고 불러모아 도시 재개발 등의 문제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시도한다. ‘새 동네: 열린 도시 안에서’는 시민, 지역사회 모임, 교육기관 및 사업체, 그 밖의 사회, 문화, 경제 단체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반 시민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다양한 교육과 디자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것이다. 스스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꺼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 할 것이다...” 박 경(APAP2010 예술감독)

[어긋난 대화: 왜 공공예술이 필수적인가?]

“...과정형의 공공예술이 처음 보기에는 공원의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공공예술만을 받아들이는 고속 성장의 물질 위주의 문화에 반하는 이상한 무엇인 듯 보일지라도, 한국의 열정은 공공의 삶과 학문을 받아들이고, 또 진화하는 시민의 관계는 이를 받긴다. 문제는 대중의 무관심 같은 것이 아니다. APAP2010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일반 시민들이 예술적인 문제를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이다- 정부가 자유로운 범위의 공공예술 실험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정적인 동시에 변화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데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 수잔 레이시(예술가, OTIS 교수)

[APAP2010과 소문으로서의 예술]

“...무엇보다 APAP2010의 중요성은 국내에 미칠 파급력에 있는데, 도시 단위의 규모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에서 주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생겨나기 시작한 NGO, 예술교육, 문화복지 단체가 수행하는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모델로 차용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충실하고 설득력 있는 아카이빙이 중요하다. 공동체와의 작업은 완결의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맥락을 읽어내어 축적하는 것이고, 앞에서 쌓아놓은 자료와 기록들은 다음 작업의 든든한 재료로써 작용한다. ‘새 동네’는 이러한 숲의 과정을 축적하고 시민과의 교류와 교육 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한다...”

오세형(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팀)

APAP2010 -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대상지역 : 안양시 전역

- 주 제 : 새 동네_ 열린도시 안에서 New Community_ In The Open City

제 3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APAP 2010)는 일시적이며 변화무쌍한 현대 도시 속에서 ‘새로운 지역사회’에 대한 아이디어, 신념, 구조를 탐색하는 프로젝트이다. APAP 2010은 이를 위해 도시 경관에 대한 두 가지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는 인위의 생태는 자연 생태를 반영한다는 도시 생태론이고, 둘째는 공공문화론으로 예술의 실천은 다학문적, 연구중심, 과정지향적인 대중과의 협력이라는 관점이다.

도시적 삶의 단편들과 얽혀있는 APAP 2010 프로젝트는 다양한 시민과 지역사회를 연계시키고 불러모아 도시 재개발 등의 문제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이다. “새 동네_열린 도시 안에서”는 시민, 지역사회 모임, 교육기관 및 사업체 및 그 밖의 사회, 문화, 경제 단체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반 시민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다양한 교육과 디자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것이다. 스스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꺼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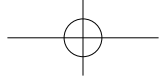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새 동네’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며, ‘열린 도시’는 환대와 공유, 계몽의 도시 공간이다

- 기간 : 2010.10.2

- 예술감독 : 박 경 Kyong Park

- 프로젝트 : 2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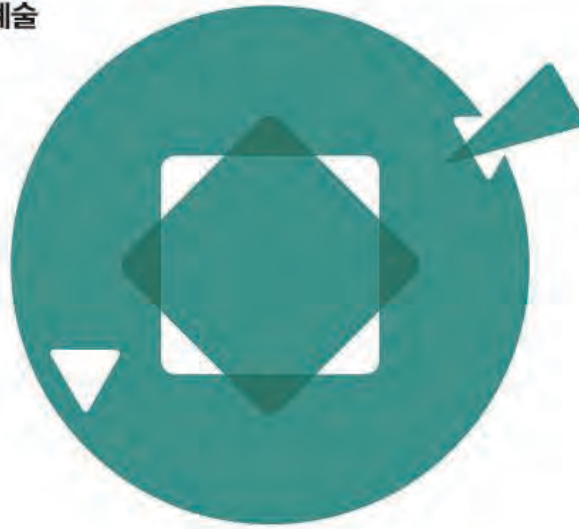
- 참여자 : 작가 및 건축가 30, 국내 대학 8, 국외 대학 11



APAP2007
로고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제3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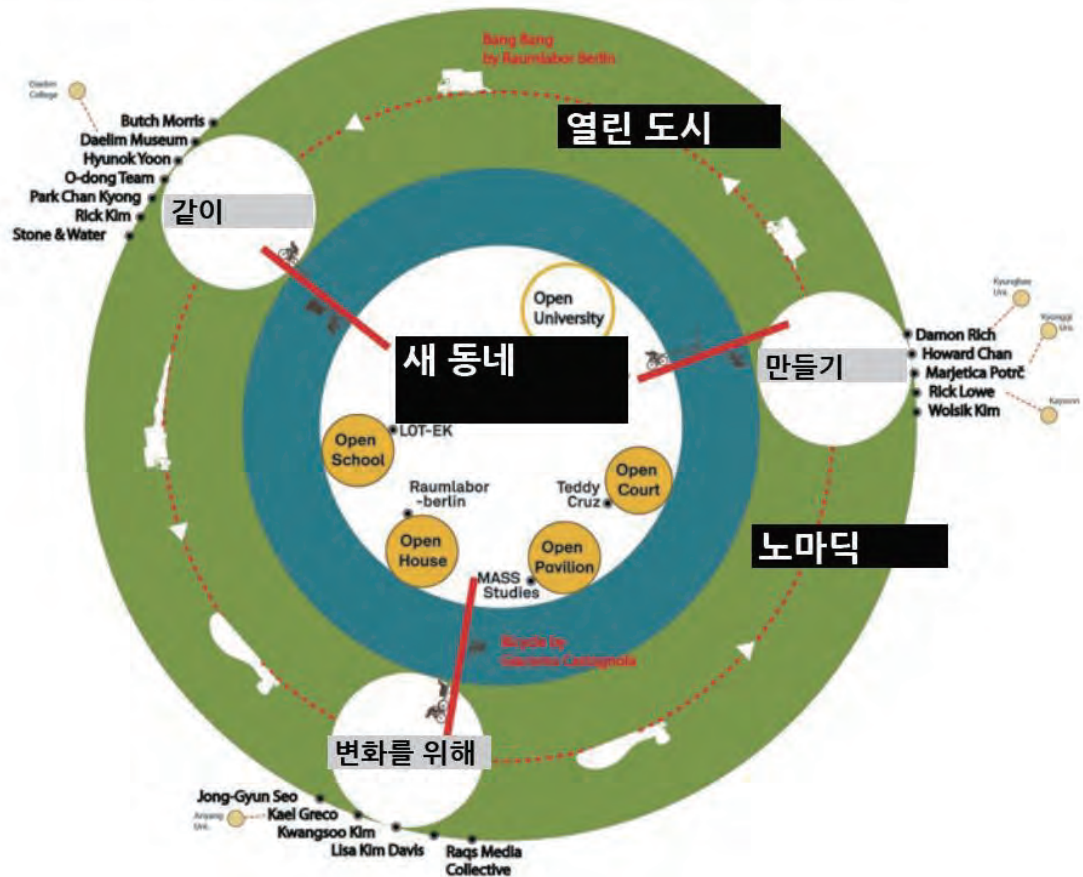
APAP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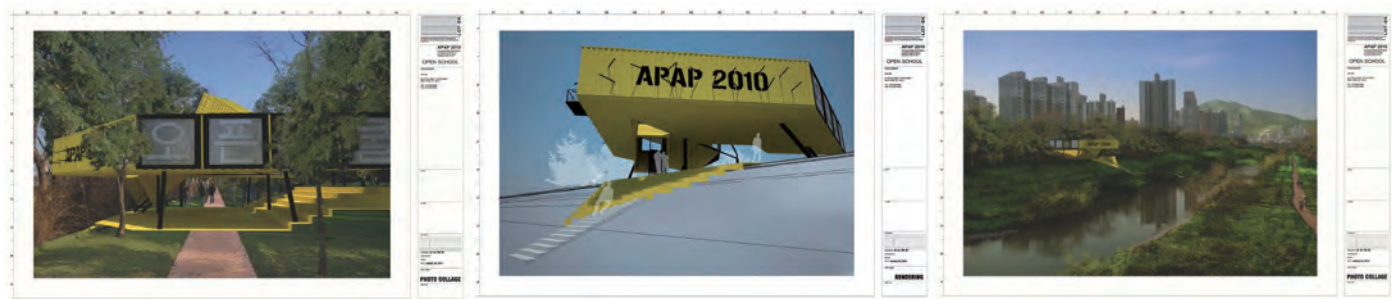


새 동네:
열린 도시
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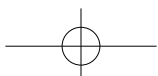
A NEW
COMMUNITY
IN THE
OPEN CITY

프로젝트 구조 Project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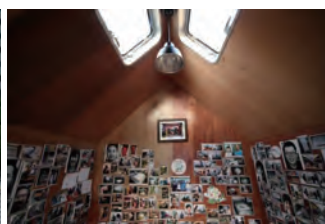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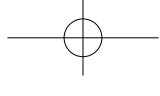
[오픈 스쿨]
롯데
*학운공원
[Open School]
LOT-EK
*Haku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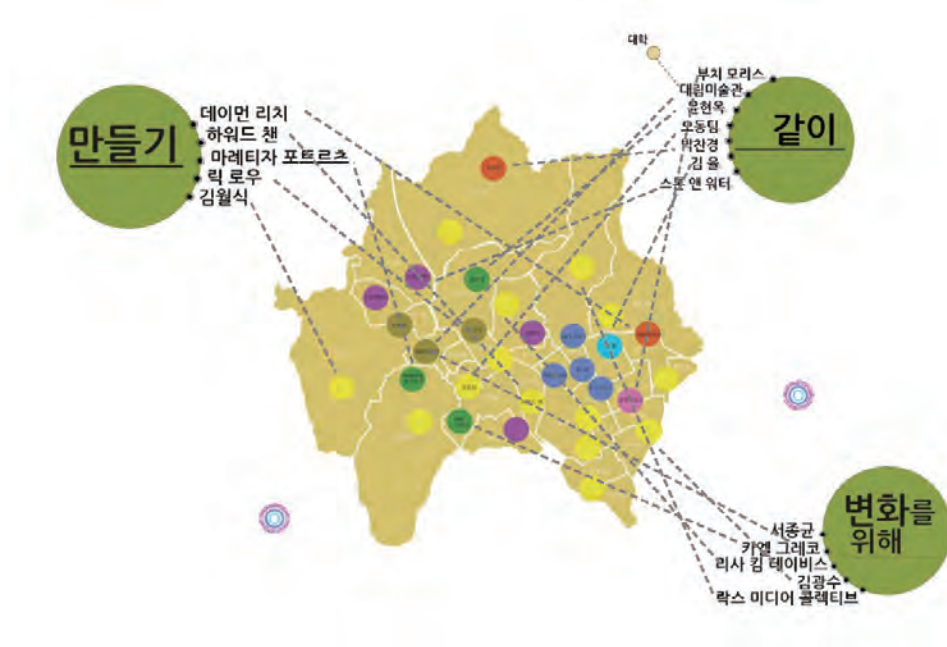


[오픈 하우스]
라움라보어베를린
*학운공원
[Open House]
RaumlaborBer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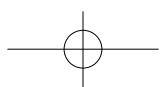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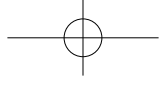


[오픈 파빌리온]
매스터디스
*학운공원
[Open Pavilion]
massstudies



[2010만안 이미지-기록과 기억]
대림미술관
[2010 Image of Manan – Record & Memory]
Daerim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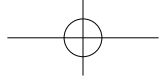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놀자, 방방!]
윤현옥
[Play, Bang Bang!]
Hyunok Yoon



[주민되기]
오동팀
[Being-Residents]
O-Dong-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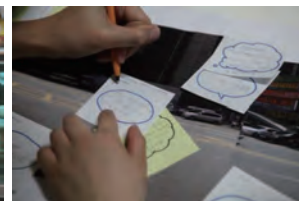
[SAP2010 뉴 올드 만안 디자인-만안 하세요?!]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Seoksu Art Project 2010 New Old Man An Design
-MANAN HASEYO?!]
Supplement Space Stone &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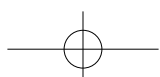
[자율방범대신축프로젝트] 신혜원
[New Shelter Project Anyang
Civilian Volunteer Police]
Haewon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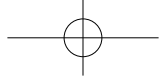


[우리들의 방-안양여성들의 수다] 수잔 레이시
[Room of Our Own-Anyang Women's
Conversation]
Suzanne Lacy



[불평 박물관] CMP
[Complaints of Museum]
C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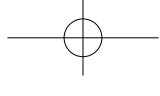
[자율방범대신축프로젝트] 신혜원
[New Shelter Project Anyang
Civilian Volunteer Police]
Haewon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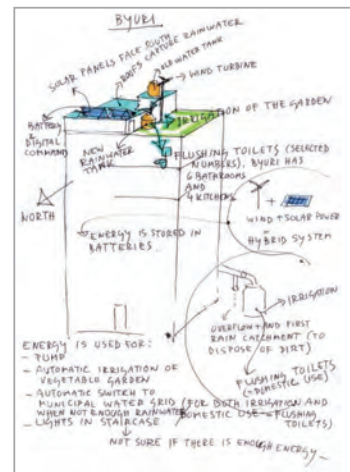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
박찬경
[We wish to reincarnate in Paradise]
Park Chan Kyong



[무늬만 커뮤니티]
김월식
[Seems Like Community]
Wol Si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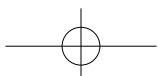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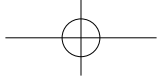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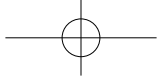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자전거 프로젝트]
자코모 카스타놀라
[Slowtrans Anyang]
Giacomo Castanola



열린 텃밭] 마레티자 포트르츠
[Open Vegetable Gardens]
Marjetica Pot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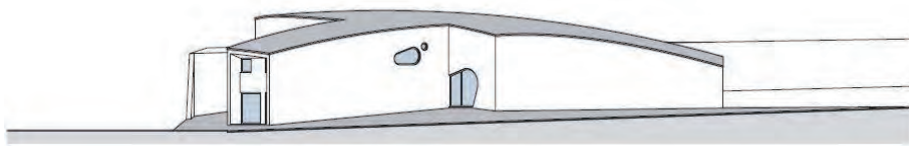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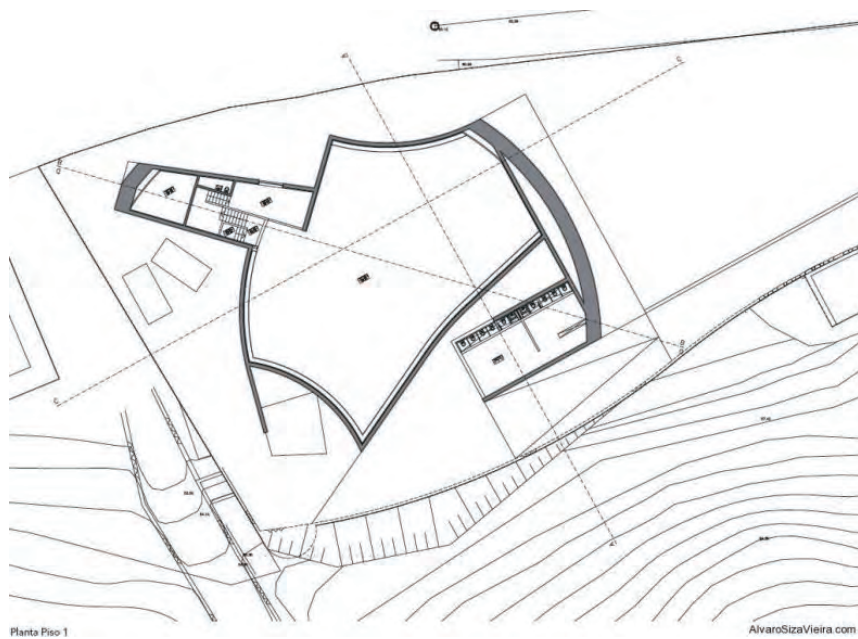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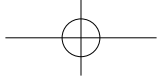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제4회

안양 공공
예술프로젝트
APAP2013



APAP2013 -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대상지역 : 안양예술공원 등
- 주 제 : Public Story
- 기 간 : 2013.10.26(예정)~
- 예술감독 : 백자숙 Beck, Jee Sook
- 프로젝트 : 10~15개(예정)
- 주요 프로젝트
 - > 정비 프로젝트 : 브랜드+디자인, 작품 정비, 알바로 시자홀 재개관
 - > 시민참여 프로젝트 : 만들자 연구실
 - > 리스토리텔링 :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 > 아카이브 : 공원도서관, 아카이빙
 - > 교육프로그램 : 작품 투어, 시민참여 퍼포먼스





미술과 공공성의 관계를 연구하는 실험실로서의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

곽소연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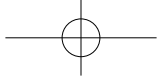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 (Sculpture. Projects Münster)는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 베스팔렌주 (Nordrhein-Westfalen)에 위치한 중소도시 뮌스터 (Münster)의 공공 공간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1977년에 시작되어 10년을 주기로 열리며 지난 2007년 제 4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시작 당시부터 미술장르로서의 ‘조각’의 개념을 연구하고, 미술, 도시, 공공성 (Art, City, Public)의 상호관계와 이와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본 강의는 지난 4회 프로젝트를 조망하며 몇몇 구체적인 작업을 사례로 예술작업이 도시와 도시의 공공 공간과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술, 도시, 공공성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장기적 실험실로서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를 고찰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기본 컨셉과 특징

도시 뮌스터는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주에 위치한 약 296,000명의 인구를 가진 중소도시로 중요한 행정 기관들과 법률기관들이 소재한 행정도시이면서 동시에 다수의 교육기관이 자리한 교육도시이자 독일에서 손꼽히는 큰 대학이 위치한 대학도시이기도 하다. 799년 가톨릭교의 주교구가 설립된 이래로 이 도시에는 가톨릭교의 전통과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옛 성곽 터를 따라 형성된 산책로 (Promenade)로 둘러싸여 있는 뮌스터 도심은 중세부터 발전되어온 도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중심부에는 돔 성당 (Dom)과 광장, 상업 거리인 프린치팔마크 (Prinzpalmarkt)와 시청 및 다수의 교회들과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뮌스터 도심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폭격으로 상당부분 파괴되었지만, 전후 도시 복원이 중세부터 발전되어온 도시의 구조를 가능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재건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도시의 모습과 50년대 이후에 새롭게 건축된 현대적 건물들의 공존이 전체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의 기본 컨셉은 초대된 작가들이 도시를 직접 답사하고 자신이 선택한 장소의 지형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연구하며 그 현장에서 작업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작업의 설치 장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옛 성곽 터를 따라 형성된 도심의 경계를 나타내는 약 4.3km 길이의 산책로 (Promenade)로 둘러싸여 있는 도심 영역과 인근에 자리한 바로크 성 정원 (Schloßgarten) 주변의 녹지대 그리고 도심 남서쪽에 위치한 ‘아 호수 (Aasee)’ 주변의 녹지대로 한정되고, 관람객들은 보도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돌아 볼 수 있다. 실현된 작업은 원칙적으로 100여일 정도 진행되는 전시기간 이후 철수되지만, 시나 미술관이 작품을 구입하거나 작가가 기증한 경우 설치되었던 장소에 영구적으로 전시된다. 지난 4회의 행사로부터 현재 약 40여점의 작품이 도시에 영구적으로 남아있고, 이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뮌스터 프로젝트는 시작 당시부터 미술장르로서의 ‘조각’의 개념을 연구하고, 미술, 도시, 공공성 (Art, City, Public)의 상호관계와 이와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해왔다. 즉 동시대 미술이 공공장소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더 나아가 미술이 공공장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등의 문제와 미술과 도시, 미술과 공공 공간, 미술과 공공성의 관계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고 10년을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매 행사마다 변화된 예술,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과 도시의 관계 속에서 다룸으로써 ‘장기적 연구’ (Kasper König)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이 행사의 제목 ‘프로젝트’가 시사 하듯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미술과 도시, 공공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완결된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보자는 과정적 성격을 표방한다.

프로젝트의 기원과 1977 년 윈스터 조각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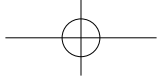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1973 년 윈스터 시는 미국 조각가 조지 리키 (George Rickey) 의 추상적인 조각 작품 “세 개의 회전하는 사각형 (Drei rotierende Quadrate)” 을 도심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윈스터 시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를 계기로 윈스터에 소재한 베스트팔렌 주립 미술관 (Westfalen Landesmuseum) 의 당시 관장이었던 크라우스 부스만 (Klaus Bußmann) 과 큐레이터 카스퍼 쾨니히 (Kasper König) 는 시민들에게 동시대 조각과 공공 공간에서의 미술작업에 대한 폭 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고, 현대 조각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1977 년 제 1 회 행사는 ‘1977 년 윈스터 조각 전시 Sculpture. Exhibition in Münster’ 라는 타이틀로 1977 년 7 월 3 일부터 11 월 13 일까지 진행되었고, 이 행사는 20 세기 현대 조각을 조망하는 미술관 주전시와 초대된 작가들이 도시의 야외 공간에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부분 (Projektbereich)’ 의 동반 전시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 부분’ 이 오늘날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의 기원이 되었고, 본래 일회적인 행사로 실현되었다가 프로젝트 부분만을 중심으로 현재의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로 변형되어 10 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개최되게 된다.

1977 년 제 1 회 행사의 ‘프로젝트 부분’ 은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랜드 아트 (Minimalism, Concept Art, Land Art) 계열의 미국의 인지도 있는 작가들과 독일 작가 총 9 명이 초대하였고, 조각 장르의 당시 최신의 특수한 형태로서 ‘공공 공간에서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 에 초점을 두었다.¹ 초대된 9 명 작가들의 작업 중 본래 설치장소에 현재까지 남아 윈스터 시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된 작업은 미국 작가 클레스 올덴버그 (Claes Oldenburg) 의 ‘거대한 풀 볼 (Giant Pool Balls)’ 이다. 작가는 당구공 형태의 거대한 콘크리트 공을 도시 전체에 흩어지도록 배치하려고 계획했으나, 재정적 한계로 결국 3,5 미터 지름의 세 개의 콘크리트 공만을 윈스터의 ‘아 호수’ 주변의 잔디밭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 작업은 설치된 장소의 평평한 잔디밭, 즉 도시의 특정 공간의 지형과 유희적으로 조우하지만 어느 도시의 공원에 전시되어도 무방한 자율적인 형태의 조각 작업이다. 영구 설치된 다른 작업 중 도널드 저드 (Donald Judd) 의 작업은 거대한 두 개의 콘크리트 고리로 - 내부 고리는 높이가 90cm 에서 210cm 로 상승하며 지름은 13,50m 이고, 외부 고리는 높이가 60cm 를 유지하고 지름은 15m 이다 - 구성된 조각으로 동물원 근처 ‘아 호수’ 주변의 부드럽게 아래로 경사진 잔디밭 위에 설치되었다. 작가는 설치 장소의 지형을 전제되고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곳에 하나의 조각적 형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완성했다. 제 1 회 프로젝트의 참여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공공 공간과 도시의 맥락에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도시의 열린 야외 공간의 지형과 주변 환경을 조형적 형태로 재규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장소와 관계를 맺는 작업을 실현했다. 예외적으로 미국작가 마이크 어셔 (Michael Asher) 는 지금까지 4 번 매 회 프로젝트에 초대되어 이동식 자동차 주택을 매주 도시의 19 개의 다른 장소에 옮겨 설치하는 동일한 작업 ‘설치 윈스터 (카라반) Installation Münster (Caravan)’ 을 전시하였다. 이 작업은 유목적인 삶 (카라반) 과 고정된 삶 (주변 환경의 집들) 을 대비시키면서, 4 회 모두 동일한 장소에 카라반을 설치함으로써 30 년 시간의 흐름 동안 도시 공간의 급속한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척도로서 기능하고 동시에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표명하는 ‘장기적 연구’ 로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987 년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1977 년과 동일하게 크라우스 부스만과 카스퍼 쾨니히가 기획한 제 2 회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1987 년 6 월 14 일부터 10 월

1) 1977년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참여작가 (총 9명): Carl Andre, Michael Asher, Joseph Beuys, Donald Judd, Richard Long, Bruce Nauman, Claes Oldenburg, Ulrich Rückriem, Richard Serra



4 일까지 진행되었고, 약 61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² 제 2 회 행사부터 현장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만으로 구성된 현재의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의 성격을 완전히 갖추게 된다. 제 2 회 행사는 조각 분야의 대표적 작가들 이외에도 공공 공간에서 작업을 실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젊은 작가들과 사진작가도 초대되어 ‘조각’ 을 보다 확장된 개념에서 파악하려고 했다. 특히, 공공 공간의 장소적 맥락과 무관하게 설치된 임의적인 아틀리에 작업들에 반하는 경향으로 ‘장소특정성 (site-specificity)’ , 즉 도시 내 특정 공공장소의 공간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특수성에 대한 작가들의 치밀한 연구가 전제된 설치 장소의 특수성과 작업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도시 내 특정 장소의 역사적 맥락을 다루는 작업의 예로 로타 바움가르텐 (Lothar Baumgarten) 의 ‘세 개의 현혹시키는 빛 (Drei Irrlichter)’ 과 레베카 호른 (Rebecca Horn) 의 ‘상호적인 콘서트 (Das gegenläufige Konzert)’ 을 꼽을 수 있다. 로타 바움가르텐은 도심의 프린치팔마크에 위치한 성람베르티 (St. Lamberti) 교회의 탑에 걸려있는 세 개의 철장에 각각 하나의 백열등을 설치하여 깜빡거리도록 하였다. 이 세 개의 철장은 1535 년 이 도시에서 종교적 난동을 일으켰던 재세례파의 주동자들이 심한 고문을 받고 사형된 후 경고의 목적으로 전시되었던 곳이다. 이 작업을 통해 작가는 도시의 역사적 사건과 종교적 이유로 이성을 상실했던 시대를 상기시키고, 작은 예술적 개입을 통해 도시를 내려티브한 공간으로 재생시킨다. 레베카 호른은 독일 나치시대에 처형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돌로 만들어진 감옥 전체의 벽에 작은 철제 망치들을 설치하여 기계적 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망치 소리가 들리게 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12 미터 아래로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도록 하였다. 이 모든 요소들은 어두운 역사적 장소에서 억누르는 듯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 작업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역사적인 금기의 장소를 그 자체로 하나의 경고의 기념비로 전환시킨다.

이외에도 작가들은 도시 공간과 장소를 다양한 관점과 층위에서 작업의 주제로 다루었다. 토마스 쉬테 (Thomas Schütte) 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광장에 사암으로 만들어진 높은 기둥과 그 위에 반짝거리는 붉은색의 래커로 칠해진 거대한 체리를 설치하였다. 이 기둥은 2 차 세계 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윈스터 도심을 복원할 때 건축 재료로 사용된 사암과 동일한 재료로 제작되어 재건된 도시의 역사를 반영하고, 동시에 인공적인 붉은 색의 체리 표면은 주변에 주차된 다양한 색의 자동차 표면과 조화를 이룬다. 이 작업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도시 한 구석의 주차장에 세워진 일종의 반기념비로서 설치장소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기념비의 개념을 새롭게 논의의 장으로 이끈다. 카타리나 프리취 (Katharina Fritsch) 는 백화점과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거리 한 가운데 사람 크기의 노란색 마돈나 조각상을 설치하였다. 사적 명상과 경외의 대상인 종교적 상징물을 이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의 공간에 배치시킴으로써 이 작업은 종교, 소비, 예술의 삼각 구도 속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남겨둔다. 레미 작 (Rémy Zaugg) 은 1912 년 당시 시장이 서면 도시로 진입하는 농부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도시의 입구에 세워졌던 브론즈 조각상 ‘황소와 농부, 말과 농부’ 를 본래의 위치로 옮기는 작업을 제안했다. 작가가 작업을 제안했을 당시 조각상은 이 조각상이 세워져 있던 본래 장소가 교통을 위한 순환 교차로로 변형되면서 행정건물 앞에 재 설치되어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한 상태였다. 도시의 변형과정에서 이 조각상의 위치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확한 본래의 설치 장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작업 진행과정에서 드러났고, 이 작업은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다양한 공공적 토론의 시발점이 되었다.

2) 1987 년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참여작가 (총 64 명 /63 팀) : Dennis Adams, Carl Andre, Giovanni Anselmo, Siah Armajani, Richard Artschwager, Michael Asher, Stephan Balkenhol, Lothar Baumgarten, Joseph Beuys, George Brecht, Daniel Buren, Scott Burton, Eduardo Chillida, Thierry de Cordier, Richard Deacon, Luciano Fabro, Robert Filliou, Ian H. Finlay, Peter Fischli / David Weiss, Katharina Fritsch, Isa Genzken, Ludger Gerdes, Dan Graham, Rodney Graham, Hans Haacke, Keith Haring, Ernst Hermanns, Georg Herold, Jenny Holzer, Rebecca Horn, Shirazeh Houshiary, Thomas Huber, Donald Judd, Hubert Kiecol, Per Kirkeby, Harald Klingelhöller, Jeff Koons, Raimund Kummer, Ange Leccia, Sol LeWitt, Mario Merz, Olaf Metzger, François Morellet, Reinhard Mucha, Matt Mullican, Bruce Nauman, Maria Nordman, Claes Oldenburg, Nam June Paik, A. R. Penck, Guiseppe Penone, Hermann Pitz, Fritz Rahmann, Ulrich Rückriem, Reiner Ruthenbeck, Thomas Schütte, Richard Serra, Susana Solano, Ettore Spalletti, Thomas Struth, Richard Tuttle, Franz West, Rémy Zaugg



1997 년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1997 년 6 월 22 일부터 9 월 28 일까지 진행된 제 3 회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약 76 명의 역대 최다수의 작가들이 참여했고 약 500,000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던 대중적으로 성공적인 행사였다.³ 주최 측에 의하면 독일 관객 보다 더 많은 해외 관객들이 행사를 방문했고 제 3 회 행사를 통해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미술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 2 회 행사와 마찬가지로 크라우스 부스만과 카스퍼 퀴니히에 의해 기획된 제 3 회 프로젝트는 ‘서비스로서의 예술’로 분류될 수 있는 다수의 작업과 내러티브적이고 시적인 방식으로 도시 공간을 다룬 작업들, 그 외에 도시 공간과 장소의 맥락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접근하는 작업 등 폭 넓은 스펙트럼의 작업들이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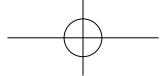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서비스로서의 예술’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의 예로 호르헤 파르도 (Jorge Pardo)는 ‘아 호수’ 위에 40m 길이의 목재 선창을 휴식의 플랫폼으로 제작하였고, 타다시 카와마타 (Tadasi Kawamata)는 나룻배를 만들어 ‘아 호수’ 주변의 작업들로 관객들을 운송하였다. 베르트 타이스 (Bert Theis)는 대학 건물로 사용되는 바로크 성과 식물원 사이에 ‘철학적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설치하였고, 볼프강 빈터와 베르톨트 회벨트 (Wolfgang Winter / Berthold Hörbelt)는 음료수 병 저장과 운반을 위한 플라스틱 상자들로 제작된 구조물을 만들어 이를 프로젝트를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로 기능하도록 도시 곳곳에 설치하였다.

시적이고 내러티브한 작업의 예로 자넷 카디프 (Janet Cardiff)는 윈스터 산책을 위한 오디오 투어를 제작하였고 관객은 작가가 제작한 워크맨을 들으며 정해진 길을 따라 시내를 산책할 수 있다. 관객은 녹음된 다양한 소리와 함께 주변 환경에 대한 감상과 이야기 그리고 소설의 내용을 들으면서 다양한 분위기와 감정 상태에 빠져들고, 현실적 경험과 허구적 경험이 뒤섞이면서 도시의 일상적 장소를 매우 새로운 방식으로 인지하고 경험하게 된다. 앨런 루퍼스베르그 (Allen Ruppersberg)는 ‘가능한 세상의 최고 : 윈스터에서의 새로운 여행으로서 볼테르의 칸디드의 재현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 A re-enactment of Voltaire’s Candide as a new tour of Münster)’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들을 윈스터의 다양한 장소로의 시간여행으로 이끈다. 작가는 시민들과의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11 개의 장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장소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이 작업은 도시 공간과 그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이야기를 결합하고 이를 통해 이 도시를 다른 시각에서 체험하게 한다.

그 외에 마리아 아이히호른 (Maria Eichhorn)은 도시의 특정 토지를 매매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도시 내 토지의 소유관계와 사유재산과 공적 공간의 관계를 문제시하며 공공 공간에서의 미술을 위한 근본적인 전제조건들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2007 년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3) 1997 년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참여작가 (총 76 명 / 73 팀): Kim Adams, Carl Andre, Michael Asher, Georg Baselitz, Alighiero e Boetti, Christine Borland, Daniel Buren, Janet Cardiff, Maurizio Cattelan, Eduardo Chillida, Stephen Craig, Richard Deacon, Mark Dion, Stan Douglas, Maria Eichhorn, Ayse Erkmen, Peter Fischli / David Weiss, Isa Genzken, Paul-Armand Gette, Jef Geys, Douglas Gordon, Dan Graham, Marie-Ange Guilleminot, Hans Haacke, Raymond Hains, Georg Herold, Thomas Hirschhorn, Rebecca Horn, Huang Yong Ping, Bethan Huws, Fabrice Hybert, Ilya Kabakov, Tadashi Kawamata, Martin Kippenberger, Per Kirkeby, Jeff Koons, Svetlana Kopystiansky, Sol LeWitt, Atelier van Lieshout, Olaf Metzel, Reinhard Mucha, Maria Nordmann, Claes Oldenburg / Coosje van Bruggen, Gabriel Orozco, Tony Oursler, Nam June Paik, Jorge Pardo, Hermann Pitz, Marjetica Potrc, Charles Ray, Tobias Rehberger, Ulrich Rückriem, Allen Ruppersberg, Reiner Ruthenbeck, Kurt Rylavsky, Karin Sander, Thomas Schütte, Richard Serra, Roman Signer, Andreas Slominski, Yutaka Sone, Diana Thater, Bert Theis, Rirkrit Tiravanija, Eulàlia Valldosera, Herman de Vries, Lawrence Weiner, Franz West, Rachel Whiteread, Elin Wikström, Wolfgang Winter / Berthold Hörbelt, Jeffrey Wisniewski, Andrea Zittel, Heimo Zobern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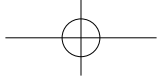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2007년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제4회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97년 프로젝트에 비교하여 의도적으로 36명의 작가를 초대하여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작업의 질적인 면에 보다 집중하였다.⁴⁾ 제4회 프로젝트는 1회부터 기획을 담당했던 카스퍼 페니히와 브리기테 프란젠 (Brigitte Franzen, 베스트팔렌 주립미술관 큐레이터), 카리나 플라트 (Carina Plath, 베스트팔렌 쿤스트페어라인 디렉터)로 구성된 3인의 공동 큐레이터십 하에 추진되었다. 제4회 프로젝트에서는 필름과 비디오 작업 및 수행적 (performative) 프로젝트들이 부각되었고, 인터넷이 도시 맥락을 넘어서 예술적 사고를 전달하는 확장된 공적 플랫폼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 공간의 사유화와 공공 공간에서의 미술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 도시 마케팅을 위한 예술의 도구화 등으로 서술될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의 변화와 지난 30년 간 발전되어온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와 도시의 공생적 역사 등은 참여 작가들에게 작업을 위한 특수한 상황이자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자체의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베스트팔렌 주립 미술관에 과거 프로젝트들을 조망하는 아카이브 전시를 동시에 개최하였고, 토론회, 강연, 작가와의 대화, 상영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 공공성, 도시공간에 대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담론화하고자 하였다.

필름 매체를 통해 도시 공간을 탐구한 작가로 클레멘스 폰 베데마이어 (Clemens von Wedemeyer)는 몇 년 전부터 폐쇄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메트로폴리스 키노 Metropolis Kino'라는 특정 영화관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 영화관 인근에 위치한 윈스터 중앙역을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하였고, 이 영화를 '메트로폴리스 키노' 영화관에서 전시기간 동안 상영하였다. 내부의 어두운 영화관에서는 영화가 끊임없이 상영되고 영화 자체는 이 영화관의 주변과 중앙역 인근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작가는 영화 속 장소와 실제 장소를 묘하게 결합시키면서 도시 공간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다. 윈스터라는 도시를 필름으로서 필름을 윈스터로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한 작가팀 에란 세르프와 에바 마이어 (Eran Schaerf / Eva Meyer)는 윈스터에서 촬영된 영화와 윈스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윈스터의 한 가족의 사적인 기록영화의 장면을 그리고 작가가 직접 촬영한 장면들을 몽타주하여 하나의 필름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는 픽션과 다큐멘터리 사이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영화적 공간으로서의 윈스터를 만들어내었다.

수행적 프로젝트의 예로 마리아 파스크 (Maria Pask)는 바로크 성 주변의 녹지대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 대표자들을 초대하여 이들이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영적 경험 그리고 서로 다른 종교들이 공존가능한가에 대해 강연을 하고 관객과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도라 가르시아 (Dora Garcia)는 '거지의 오페라 (The Beggar's Opera)'라는 프로젝트에서 '거지'로 설정된 인물을 윈스터 시에서 배회하도록 하였다. 이 '거지'는 도시를 관찰하며 거리에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매일 일기로 기록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였다. 작가는 이 작업을 '공공 공간에서의 지속적인 퍼포먼스'로 명명하며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야기를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게 한다. 그 외에 안드레아스 지크만 (Andreas Siekmann)은 '하향 침투 (Trickle down), 사유화 시대의 공공 공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베를린 (Berlin)의 곰이나 하멜른 (Hameln)의 쥐와 같은 도시 마케팅을 위한 상징물 뒤에 숨겨진 경제 원리와 도시 공간의 사유화의 문제를 다룬다. 도미니크 곤잘레스-포스터 (Dominique Gonzalez-Foerster)는 지난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에서 실현되었던 몇몇 작업들을 미니어처로 제작하여 이들로 구성된 일종의 테마파크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는 윈스터라는 도시를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에 의해 점유된 도시로 보고 이 프로젝트를 도시 역사의 일부로 다룬다.

4) 2007년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참여작가 (총 36명): Pawel Althamer, Francis Alÿs, Michael Asher, Guy Ben-Ner, Guillaume Bijl, Martin Boyce, Jeremy Deller, Elmgreen and Dragset, Hans-Peter Feldmann, Dora Garcia, Isa Genzken, Dominique Gonzalez-Foerster, Tue Greenfort, David Hammons, Valérie Jouve, Mike Kelley, Suchan Kinoshita, Marko Lehanka, Eva Meyer and Eran Schaerf, Deimantas Narkevicius, Bruce Nauman, Maria Pask, Manfred Pernice, Susan Philipsz, Martha Rosler, Thomas Schütte, Andreas Siekmann, Rosemarie Trockel, Silke Wagner, Mark Wallinger, Clemens von Wedemeyer, Annette Wehrmann, Pae White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와 도시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다소 보수적인 윈스터 시민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보였다. 행사 초기 1970년대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이런 새로운 컨셉의 프로젝트가 역사적인 도시의 오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행사가 반복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와 카셀 도큐멘타와의 비교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변화시켰다. 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도시의 경제적 발전에 일정부분 효과를 가져왔고, 이와 함께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윈스터가 중요한 도시로 알려지면서 도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지형도에서 포지셔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미술과 도시, 미술과 공공 공간, 미술과 공공성에 대한 장기적 실험실로서 기능함으로써 비엔날레나 도큐멘타와 같은 여타 거대 규모의 국제적 예술 행사와는 차별화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의 사례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의 재생이나 창의 도시 만들기나 일회적 행사나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이루질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시와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예술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광준 | 바람부는연구소 대표¹

1. 예술의 새로운 흐름 : 도시와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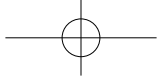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공공미술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1 단계는 미술가를 위한 공공사업 (Public Works for Artists) 이다. 2 단계는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로 건축물의 미술장식² 으로 공공 건물의 미적 장식으로 벽화나 조각을 설치 단계이다. 건축속의 미술은 아니지만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2008~2011 년의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된다. 3 단계는 공공 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 로 퍼센트 예술정책 (Percent for Art Policy) 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 개선에 공공미술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기금 지원한다. 퍼센트 정책은 아니지만 복권기금으로 2 년동안 추진되었던 아트인시티 사업이나 이에 해당된다. 초기에는 정부 건물에서 시작해서 공공 건물, 공공 장소로 확대되었고, 도시와 공간의 맥락을 고려한 미술을 지향한다. 장소 일반 미술 (site general art) 에서 장소 특정적 미술 (site specific art) 로 확장된다. 국내에서는 2006~2007 년 추진된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된다. 향후 전개될 공공미술 및 공공디자인은 4 단계와 5 단계에 있다. 도시재생을 위한 미술 (Art as Urban Revitalization) 로 도시 재개발이나 도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공공미술을 도시 계획 과정에 결합하거나 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미술은 문화도시, 창조도시, 도심재생의 도시 담론과 함께한다. 첫째, 도시 계획적 구상 속에서 공공미술을 도입하는 공공미술 종합계획 (Public Art Master Plan) 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둘째, 도시 재개발 구상에 공공미술을 결합한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워터프런트 공공미술이나 프랑스의 라빌레트 (도시 마케팅, 장소 마케팅 개념 결합) 가 사례가 될 수 있다. 셋째로, 도심 공공장소 속의 미술 정책이다. 공공미술 큐레이터와 예술가가 도시의 한 거리, 문화 프로그램, 새로운 컨셉의 공원, 상상력있는 문화 시설을 만든다. 공원조성이나 도시재생이란 측면에서 1 회, 2 회안양 공공미술 비엔날레가 이에 해당된다. 해외에서는 라데팡스, 달라스,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가 그 사례이다.

5 단계는 공공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공동체 미술이나 지역, 정체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과정 지향적 예술이다. 1980 년대 후반 등장해서 21 세기초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공공미술로 미술과 사회, 미술과 공공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 주로 지방 문화예술 기금이나 민감 기금이나 후원자를 통해서 지원된다.³ 일정한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아트인 시티 사업의 일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공공예술 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의 열 개의 이웃을 비롯한 일부 공공미술 사업, 2008 년 서울시

1) 현재 생태문화와 커뮤니티아트를 연구 공동체 바람부는 연구소 대표로 있고,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으로 생태적 문화거촌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문화컨설턴트로서 시민문화예술교육 컨설팅, 창작레지던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문전성시 프로젝트 컨설팅단 단장, 서울시 창작공간 추진단, 도시갤러리 커뮤니티아트 책임큐레이터로 있었다.

2) '도시문화 환경개선' 과 '미술 창작 활동 진흥' 을 위해 1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할 때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 (문화예술진흥법 13 조 및 동 시행령 24 조, 25 조)

3) 최범 편집, 김경욱 양현미 이영범 전용석 공저,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관광부, 2006, pp.28~32



도시갤러리 사업의 커뮤니티 아트 사업이 이에 해당되지만 예술 내적 진화라기 보다는 단발적 기획이었고, 제도적 진화에는 실패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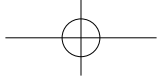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미술에서 확장되어온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과 건축과 조경은 상호 결합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수렴하기 시작한다. 또한 문화 정책적 시도와 예술적 실천들에 대한 사유 속에서 환경미학, 조경 미학, 환경 디자인 등의 다양한 이론적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 장소에 놓는 예술 작품에서 시작한 공공미술의 역사는 공공 영역까지 확장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공공미술을 정책가, 연구자, 비평가들은 각자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필요에 따라, 비평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였다. 건축을 위한 미술 (Art for Architecture), 도시속의 미술 (Art in a city), 공공의 미술 (Art in public), 공익 속의 미술 (Art in public interest) 등으로 명명되었는데 이 중 건축, 공공 장소, 도시를 강조하는 공공 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은 주로 공공 기관에서 주도하는 공공미술 제도나 정책 차원에서 많은 부분 추진되었다. 이는 국가적 차원, 지방 정부 차원, 공공미술 기금 차원에서 공공미술 제도를 통해서 실행된다. 후자인 공익 속의 미술, 새 장르 공공미술, 사회적 과정으로서 미술 (행동으로서 미술 포함) 등은 프로젝트 기금이나 후원자를 배경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예술가들의 실천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이다.

2. 건축, 디자인, 미술과 공공성

자본주의 체계와 산업화가 예술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하다. 과도한 노동 체계에서 예술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없고 그래서 삶이 피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예술계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정당화를 바탕으로 예술 제도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무수한 예술 기관과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인력들이 배출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계획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 마케팅이나 장소 마케팅이나 관객 개발과 연관해서 시설은 여전히 설립되고 있다. 기존 미술관과 박물관의 대안으로 퐁피두 센터와 라빌레프를 이야기 하면서, 팝아트와 대중예술을 전거로 하면서 예술의 무한한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다. 공공 영역에 대한 인식에 기반 한 공공미술은 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을 추구했지만, 공공 장소에서 펼쳐진 공공미술은 곧 화랑과 미술관의 미적 기준과 규범에 의해 포용되었다. 예술 작품도 얼마든지 공공 장소를 활용해야 한다. 더 이상 근대 디자인과 모더니즘 건축에게 모든 것을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이 그것이다. 이러한 예술 제도의 확장이나 예술 교육을 공공예술로 볼 수는 없다. 아서 단토가 제기하는 예술의 종말을 변형한 의미에서 예술 이외에 모든 타자를 배제하는 예술적 지향에 대한 단절과 예술가 개인이 획득한 의미의 표현으로 예술을 설정하는 흐름의 종말에서 공공미술은 시작될 수 있다.

1962년을 추상표현주의가 종말을 고한 해로 기억한다면,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양식들이 현기증나는 속도로 이어졌다. 색면 회화, 하드에지 추상, 프랑스의 신사실주의,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리즘, 아르테 포베라, 그런 다음에 리처드 세라, 린다 벤글리스, 리처드 터틀, 에바 헤세, 바리 르 바 등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신조각, 다음에는 개념미술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 다음 10년은 대단한 것이 전혀 출현하지 않은 시기였다. 그런 다음 80년대 초에 와서 추상표현주의가 단번에 부상해서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했다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이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생겨났다. 최근에 들어와 사람들은 타자들을 배제하는 토대가 되는 단일한 내러티브 방향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각예술계에 엄청난 실험적 생산성이 분출되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1960년대는 양식들의 발작기였으며, 이 시기가 진행되던 중에, 예술 작품이 한갓된 실재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조되는 특별한 방식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해지고 있다.”⁴⁾ 이처럼 특별한 방식 없고 일상 사물과 구별되지 않는 것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예술의 종말을 깨닫는 시점에서 모더니즘의 역사는 국지적이고 물질적인 것 속에서 종말이 된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종말 이후, 예술이 타자를 서서히 받아들이고, 더하기를 시작하면서 공공미술의 싹은 본격적으로 발아되기 시작한다. 할 포스터가 이야기한 대로 공공미술의 잠재성은 전시장과 박물관을 부정하고 예술이 존재하는

4)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 이성훈 이광우 옮김, 미술문화, 2005, p.58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근현대 미학이 만든 부르주아 중심의 예술 거주 환경을 거부하고 새로운 예술의 새 거주지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예술이 순수의 세계에서 복잡성의 세계로 나와 새로운 거주지를 만드는 작업은 간단치가 않다.

“20 세기 접어들어 미술과 공공이란 용어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공공미술의 정의 또한 그런 모순을 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모더니스트들의 미술이 흰 벽면으로 둘러싸인 갤러리의 밀폐된 공간을 장악한 반면 공동체 미술, 아웃 사이더 미술 등 일상 생활과 연계된 예술 형태는 제도권 미술 단체에 의해 미학적 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변적인 예술 형태로 폄하되는 현실이 만들어져 왔다.”⁵

맬컴 마일즈는 도시적 차원과 사회적 과정의 여러 실천을 상보적인 관계로 정립하려고 한다.

설계 건축 디자인과 미술 등 공간 구성의, 제 단위들은 이제 앞으로 도시를 계속해서 폐허로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책임성 있는 새로운 도시주의를 개척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후자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단일 이상을 강요하지 않는 도시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무엇이 도시를 구성하는가? 누구를 위해 도시의 행복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많은 질문들 속에 공공 장소, 도시 디자인, 공공 영역의 표현 등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만약 미술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해주고 공공 장소의 디자인에 기여하며 사회적 비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도시 거주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일일 것이다. 도시의 자족성이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술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도시 디자인과 통합된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미술의 유용성, 장식성이다. 이는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즐겁기까지 한 장식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부여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미술이다. 이는 억압에 저항하고, 공공적 관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공 영역과 가정 영역을 넘나드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직접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이 둘은 창조적 긴장감을 형성하며, 서로 배타적이기 보다 보완하는 상보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⁶

3.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의 실험과 한계

살만한 도시, 인간적 도시를 만들려는 생각들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유는 근대적 기획이 만든 현재의 삶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도시는 긍정성 보다 부정적 측면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염, 소음, 과밀함, 폭력, 씨커스의 환경이 되어가고 있어, 물리적 편안함도 있지만 심리적 안정보다는 부유하는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 조경, 디자인, 미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20 세기 대부분의 시도는 닫고 분할하는 근대적 계획으로 종결되었다. 사람이 없는 계획과 원근법적 기획이 만들어 온 근대적 풍경은 딱딱하고 거친 풍경, 어디에서도 편하게 쉬기 힘든 공간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근대에 대한 반성, 성찰, 새로운 모색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십 수년간 있었지만, 우리에게겐 멋진 개념이나 그럴듯한 단어로만 보여진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인 전환의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패스트푸드처럼 쉽고 간편하고 달콤한 환상 조명, 상징조형물, 기획사 축제, 문화 이벤트로 딱딱하고 차가운 도시를 숨기고 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공공 기관 및 시민 사회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지만 그간의 도시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만드는 과정은 근대적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진 시설확충에 그치고 있었다. 진정한 의미의 공공적 영역을 풍요롭게 만들려는 기획은 그리 많지 않았다. 2~3 년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문화를 통해서 삶을 재생하려는 노력을

5) 맬컴 마일즈, 미술 공간 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박삼철 옮김, 학교재, 2000, p.143

6) 맬컴 마일즈, 미술 공간 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박삼철 옮김, 학교재, 2000, pp.304~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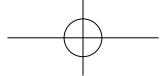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기울이고 있지만, 추진 과정을 보면 근대적인 행위 방식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문화 환경이 필요하다면, 창조적인 문화환경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창의적이고 개방적일 때 도시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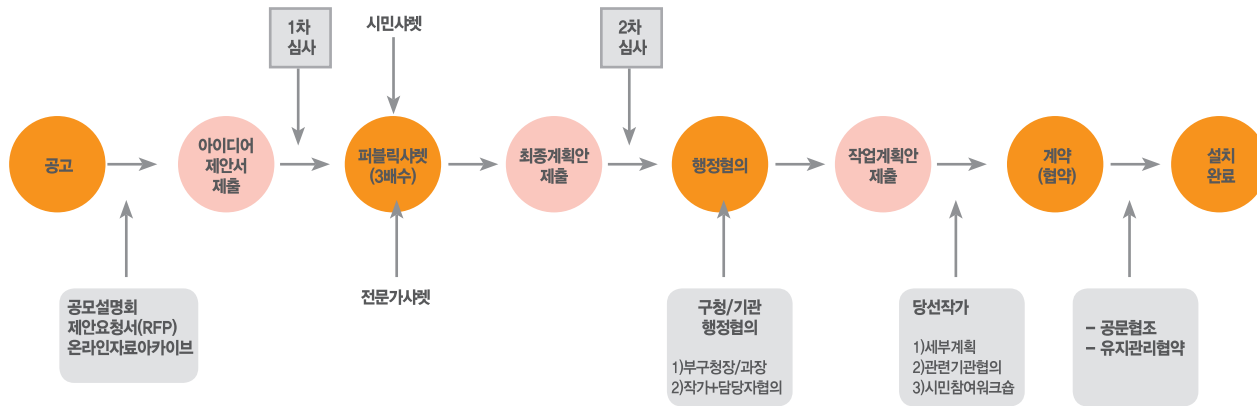
서울시 도시갤러리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도시가 작품이다” 는 앙리 르페브르의 책의 한 구절을 가져왔다. 도시 전체를 작품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공간을 거주자와 사용자의 공간인 살아있는 공간 (lived space) 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이다. 그래서 작품화 과정은 살아있는 공간을 목표로 도시를 재구축하는 일이 된다. 이 목표로 가는 과정에는 세가지 축을 설정했다. 첫째, 마당을 만드는 일, 광장을 만드는 일, 소통이 일어나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일이다. 사람과 사람들이 교류하며 창조성을 만들고, 서로를 즐거이 맞이할 수 있는 경관환경, 시각환경, 문화환경을 통해서 내면이 풍요로워지는 공공 영역, 공공 공간이 마당이다. (Agora) 둘째, 사랑을 만드는 일이다. 거주자 / 사용자가 반응하고, 향유하고, 가꾸지 않는 사물은 항상 재개발되어야 한다. 용도 폐기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는 공간, 건물, 사물이 아니라 항상 쓰고 버리는 소비적 근대적 방식이다. 어떤 마을이 정말 풍요로움을 줄 때는 거기 사는 이들의 성찰과 상상력이 배어 들어가 상상력과 결합해서 만들어졌을 때이다. 새마을 운동 방식이나 속도전의 방식은 사랑이 아니라 완성에 집착하게 한다. 살만한 도시에는 살아있는 작품이 있고, 이 살아있는 작품은 주민 / 시민의 자발성에서 생명력을 얻게된다. 예술 활동은 긴장과 충돌 속에서 사랑을 만드는 일이다. (Amor) 셋째, 근대에 대한 성찰을 통해 탈 근대를 만드는 방법으로 예술을 선택했다. 장소 속에 사는 사람들과 지역적 공간의 특성과 세계와 연결된 열린 장소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사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 삶의 가치를 통해서 사물을 만드는 예술로서 공공예술을 창조하는 일이다. (Ars)⁷⁾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어떤 장르가 주가 되느냐 보다, 장소성을 구현할 수 있는 최대의 목적에 맞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에 대한 개방성을 갖느냐? 참여 구조에서 다원성을 확보하느냐? 가 중요합니다. 사용자 (Public User), 창작자 (Place Maker), 위원회 및 큐레이터 (Public Curator) 의 세 가지 축이 충분히 구상과 실행 과정에 반영되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갤러리 추진 방식은 다른 공공미술 사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이디어에 대한 중요성을 주목했다. 1 단계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계획 심사 후 2 단계 작품 심사 방식이다. 1 차는 아이디어 중심으로 해서 다수를 뽑은 뒤, 2 차 실행계획을 최종 심사하는 2 단계 방법으로 통해서 추진된다. 그 이유는 개념, 아이디어, 상상력, 실행가능성을 보고, 그 뒤 경쟁을 통해서 세부안을 발전시킨 뒤 심사함으로써 예술작품안의 밀도를 높이고 공공성과, 장소를 읽어내는 능력을 높이려 했다. 둘째, 건축 프로세스에서 빌려 온 퍼블릭 샤프트 (집중검토회의) 이다. 1 차 아이디어 경쟁을 거친 후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시, 건축, 디자인, 미술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작품의 승인과 유지, 관리에 참여할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작품 안을 점검하였다. 시민과 전문가, 업무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것은 더욱 키우고 그렇지 못한 것은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더불어 아름다운 꿈과 디자인 능력을 갖게 된 점은 도시갤러리의 수확이다. 체계적인 공공미술 사업의 정착을 위해 시민과 예술가, 관의 협업거버넌스 구조가 실제화되었을 때 성공적일 수 있다. 셋째, 목적에 맞는 심사위원 구성이다. 도시 공공미술은 결코 미술계에 한정해서는 안된다. 지역 맥락, 공간 맥락, 주민의 내재적 요구, 공공미술 개념을 볼 수 있는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인문학 등 인접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넷째, 공공성과 장소성의 강조이다. 작품 안을 심의할 때 기존 미술이 조형성만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공공성 (25%), 장소성 (25%), 조형성 (25%), 예술성 (25%) 등을 함께 고려한 심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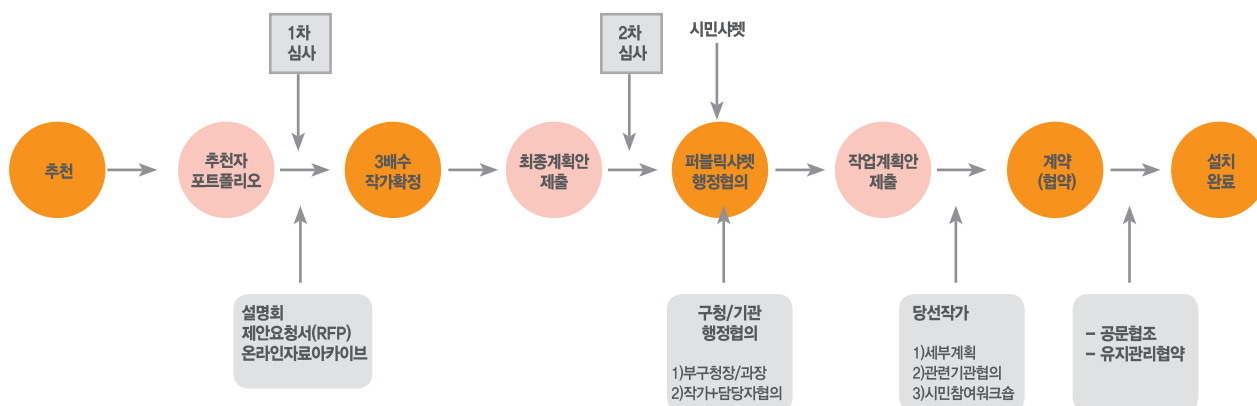
7)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07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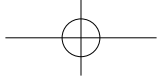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일반공모 추진절차 〉



〈 지명경쟁 추진절차 〉



다섯째, 사이트 프로파일링 및 장소리서치이다.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를 했다. 어떤 장소를 대상으로 하느냐? 범위를 어느정도로 하느냐? 전제되어야 할 건축, 도시디자인 요소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 장소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는 작품 창작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 예시⁸

Physical Investment	approach concept	Site	behavior
trail	예술적인 길	사간/삼청길	골목탐험, 공방..
	샛길	청계천-광장시장	재래시장..
plaza	광장	광화문광장	신규공간조성
parks	쌈지 공원 연결	훈원공원	코스튬플레이
	쓰레기공원	난지공원	나들이, 사진
	섬공원	서래섬	한강르네상스
roads	대학로	대학로대로변	공연 관람...
by-street	옛정취있는 골목길	피맛길	술, 음식 문화
public institutions (Indoor space)	정독도서관	정독도서관 내외부	책문화, 휴식
open space	한강	마포지구	자전거타기

4. 도시적 차원 예술 프로젝트의 몇몇 문제들

첫째, 경제적 효과의 문제이다. 예산 규모에 비해 사회적 또는 예술적 성과가 빈약한 미술처럼 인식되고 있는 점이다. 도시 규모의 공공미술의 확장에 따라서 다양한 부서에서 공공미술을 추진하지만 전문적인 프로세스 운영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가 없고, 작품만 양산되는 구조에서 효과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도시 공공미술,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의 기금 조성이 미미하고 공공미술 재원의 투입 또한 불균형하다. 도시 계획이나 도시 재개발과 연결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거대한 재원이 투입되지만, 공동체 미술이나 사회 참여적 미술은 여전히 미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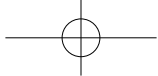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둘째, 비평의 부재의 문제이다. 공공미술에 대한 비평은 갤러리 작품처럼 잘 만들어진 모델이 없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갤러리 전시 작품에 대한 비평은 미술사적 방법으로 작품이 어디서 유래하고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밝혀내지만 공공미술은 아직 한계가 많다. 비평이 작품을 결정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비평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미적 경험을 성찰해볼 수 있고, 공공행정에서는 비평과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품생애에 대한 논쟁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미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협업의 실패이다. 공동의 이론적 기반의 부재에 의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술과 건축의 공통성은 둘 다 개인적 저작권을 향유하며, 전문가라는 지위로 사회적으로 구별된다. 둘 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비평과 검토를 막아낼 수 있는 직업적 비결을 가지고 있다. 둘 다 혁신과 탁월함이라는 모더니스트적 미적 질에 몰두하고 있다. 이 둘이 만든 공동 작업의 결과는 공간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며, 사회는 타자일 뿐이고, 전문성이란 개인주의, 혁신, 스튜디오 내부의 행위라는 믿음을 더 공고히 하는데 활용된다.”⁹

넷째, 공공미술의 추진 주체가 공공 기관과 기업 중심이라는 점이다. 즉, 공적 장소, 공공 영역에서 미술의 수요와 미적 가치를 누가 결정 하는가? 의 문제이다.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컬렉션과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 결정 과정은 대부분 모더니즘적 미학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작가의 유명세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는 재개발의 정치적 필요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자칫, 미술계 일부의 특권을 고착화하고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거나, 개발 사업자에게 문화적 권위를 실어주게 된다.

8)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류제홍 책임연구원(현재 서울시 경관위원)의 도표

9) 맬컴 마일즈, 미술 공간 도시: 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박삼철 옮김, 학고재, 2000, p.148



다섯째, 관객 개발의 실패 또는 관객이라는 설정의 오류이다. 투여되는 예산과 규모에 비해 실제적인 관객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대성의 식민화된 체계 속에서 시민들이 전통적 미학의 관점에서, 시각 중심적 관점에서의 미술 작품이 공공장소에 많이 놓여지는 것을 예술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거나 공공 장소에 작품을 놓는 것을 예술가 자신의 사회적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틀에서 나온다. 개인 작업실과 갤러리나 미술관 제도를 통해서 개인 소유의 사이클로 순환되는 작품과 다른 공공미술 작품은 장소와 작품과 거기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통합성의 실패이다. 공간과 미술, 건축과 미술, 관객과 미술, 생활과 미술이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성을 만든 작품은 보기 드물다. 공간과 미술, 관객과 미술, 가치와 미술, 생활과 미술에 대한 예술적 이념과 실천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맥컴 마일즈가 정리한 공공미술의 문제¹⁰ 중 앞의 셋은 환경, 공간, 장소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윤리적 정치적 문제라고 한다면, 뒤의 셋은 근대 미학, 모더니즘 미학적 전제에 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난제들 속에서 공공 장소 또는 공공 영역의 공공미술은 이러한 물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진전이 없음으로 해서 커다란 한계에 직면하거나, 도시 미화를 더 부추기거나, 의도와 실체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도시 공공미술 작품이 양산되는 구조가 된다.

5. 공동체와 관계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질문들

첫째, 환경, 도시, 장소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이자 의미의 문제이다. 새장르 공공예술에서는 삶의 맥락에 대한 고려는 아주 중요하다. 정치와 사회적 삶의 보다 넓은 맥락에 대한 참조 사항들에서 새장르 공공미술 예술가들의 작업은 결코 멀어진 적이 없다. 이들은 세상의 운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예술가들은 타자성, 주변화, 그리고 억압의 문제를 강조한다. 다른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의 충격을 분석한다. 몇몇은 생태운동들로부터 또는 대중문화의 이론들로부터 가져온다. 또한 여성주의와 인종 문제를 고려한다.

둘째, 작품의 내적 외적 필요의 균형. 타자들을 위해 “좋다는 것”에 대한 오류 가능성은 새장르 공공미술 예술가들의 계속되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예상되지 않는 ‘의무’는 ‘과대망상’의 일 수 있다. 외적 필요와 내적 필요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공공의식의 전환 뿐 아니라 예술가 자신의 전환이 중요하다. 아마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술가 자신의 내부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동체의 변화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성과 책임성이다 시간적. 지속성은 관계적 연속성과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지속성이라는 쟁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간이라는 것은 조정 가능한 공간속에서 하는 시간적으로 제약된 설치와 전시 주변에 형성된 지원시스템과 그 기금의 원천에 아주 큰 부담을 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공예술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노동집약적 작업에서 예술가들의 정서적 신체적 요구는 크다. 하지만 확정된 시간을 넘어 작업을 진전시키는 것과 작업이 끝난 후에도 접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 비용은 예산 속에 거의 세워져 있지 않다. 지속성은 예술가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그 작업이 계속되는 것인데, 이것은 일시성과 영속성의 결합의 대한 문제이고, 참여된 공동체 성원, 학생 또는 예술계에 대한 미적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넷째, 상호 관계성의 문제 또는 창작 과정의 문제이다. 공간은 예술가의 작업 전략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관객 자체와

10) 맥컴 마일즈, 미술 공간 도시: 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박삼철 옮김, 학교재, 2000, pp.162~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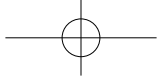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예술가의 사이에 관계에 의해 채워진다. 어떤 사람들은 상호 관계가 예술 작업이 된다. 대화의 과정은 정보를 모으는 방법뿐 아니라 예술가의 형식적 관심들을 표현하고 개념화하는 방법을 묘사한다. 타자의 목소리는 종종 있는 그대로 이 예술 작업을 통하여 전해진다. 더 공감되고, 상호작용하며 온화하고 널리 퍼진 소통 방법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독백을 통해서만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종류의 예술이어야 한다. 그것은 오직 대화 속에서, 열린 대화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듣는 가운데 그것을 획득할 수 있다.¹¹

다섯째, 관객의 문제이다. 은유적인 참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형식들을 명확히 하기 시작하면, 예술가는 작품이 놓이는 장소, 작업이 일어나는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과 함께 틀림없이 타협해야 한다. 잠재적인 관객은 실제 장소에서 발견된 진짜 사람이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증거를 불러들이는 것은 후기 현대 미술의 비평과 가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모셔진 관객의 이미지에 도전한다. 관객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단일한 것도 아니다. 예술가들은 다중적이며 복잡한 관객을 구별된 그룹, 포함된 필수 불가결한 참여자, 임시적인 관람자, 그리고 예술계 자신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예술작업의 내용은 그것의 청중 그룹을 행위의 현장으로 규정한다. 이들의 영향은 보다 유동적이고 과정 지향적인 성취에 도달하는 것뿐 아니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현장의 선택과 함께 상보적이다.

여섯째, 예술가(건축가, 디자이너, 미술가, 퍼포머)의 새로운 역할이다. 공공 영역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은 새로운 예술적 상황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어느 '환경' 이든 예술의 무대가 된다. 이렇게 전시장이나 미술관의 차원을 떠나서 확장된 공간들은 사회 속의 예술가를 위하여 더 넓은 범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통합된 역할을 요구한다. 천재와 탁월함에 의한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신화와 예술가의 신화를 벗은 예술가들은 문화적 협상가, 공동체 치료사, 교육자, 도시 생태 기획자, 사회적 디자인 사업가가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작업은 매체 활용, 전시, 토론, 공적 표출, 상담, 그리고 저술 등의 모든 과정이 분리된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예술 작업의 통합된 전체로서 개발된다.

11) Suzannane Lacy eds.,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Bay Press, 1995, p.36



공공디자인의 전통과 현대

다시 생각하는 공공성과 디자인

최 범 | 디자인 평론가

정자나무를 생각한다

여기 나무가 하나 있다. 마을 어귀에 우뚝 서있는 커다란 나무. 우리는 이런 나무를 정자나무라고 부른다. 정자(亭子)와 같은 나무라는 뜻이다.

다음 글을 읽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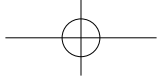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하면 마을 앞에 있는 큰 정자나무 아래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여들었다. 작은 정자나무는 내 어린 시절에 없었으므로 우리들은 큰 정자나무 아래로 모여들어 놀았다. 정자나무는 어린이들의 공동 놀이터요, 마을 어른들의 야외 사랑방이요, 마을의 대소사 일이 논의되던 진땀마을 국회의사당 같은 역할을 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즐기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할 때 고함을 치며 시끄럽게 싸우기도 하는 곳이어서 외지인이 지나가다가 쉬려면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보며 한 쪽에 가만히 앉아 있다 조용히 떠나는 그런 곳이었다...”¹

흔히 한국에는 광장문화가 없다고 한다. 물론 광장이 없었기 때문에 광장문화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광장은 없었지만 광장문화는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다. 물론 우리식대로 말이다. 광장이 공간적 개념이라면 광장문화는 관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공간은 없었지만 광장이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관계는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자나무이다. 길가나 마을 한 가운데에 서있는 정자나무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만남을 발생시키고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관계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장치였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정자나무가 곧 광장이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광장문화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서구적인 기준으로 우리 문화를 재단하는 일에 다름아니다.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동체문화를 일구어온 우리에게 관계의 공간이 없었을 리는 없다. 우리의 전통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마당이라는 것도 있었다. 광장을 마당과 비교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당은 대체로 건물에 의해 구획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완전히 열린 공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자나무만큼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리고 정자나무라는 말이 나왔을 정자라는 건물 형태도 중요한 공유시설이기는 했지만, 위치나 공간적 규모에서 볼 때 정자나무에 비할 바는 못된다. 그렇게 보면 확실히 마당이나 정자보다는 정자나무가 훨씬 더 공공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정자나무야말로 한국적 광장문화의 원형이라고 생각한다.

정자나무는 자연물이지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공화된 자연 (Man-made Nature)’, 즉 요즘식으로 말하면

1) 김도수, ‘놀이터이며 사랑방이며 국회의사당이던 정자나무’, www.jeonlodo.com/v2/ch01.html?number=4078



조경디자인이다. 하지만 단순한 꾸밈의 조경을 넘어서 완벽하게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개념으로 공공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그것은 서양의 광장처럼 형태에 의해 기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용에 의해 기능이 창출되는 것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정자나무가 정자나무인 것은 나무의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참여와 사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한국의 보자기를 닮았다. 고정된 형태에 의해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의 방식에 따라서 변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함과 상호관계의 미학이 잘 녹아 있다.

앞에서 인용한 글에서처럼 정자나무에는 만남과 놀이와 휴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정자나무에는 다양성과 개방성과 소통이 모두 공존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공공디자인의 요건을 넘치게 충족시킨다. 그런 점에서 정자나무를 한국 공공디자인의 원형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양에 광장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정자나무가 있었다.

근대화와 공공성의 변용

한국 사회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인 공공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는 ‘공공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공공성은 전통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전통사회의 공공성은 공동체성(Communality)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혈연과 지연 같은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현대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그에 비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Publicness)은 근대 시민사회의 공공성이다. 전통사회의 공동체성이 공동사회(Gemeinschaft)라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면, 근대 시민사회의 공공성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익사회(Gesellschaft)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점에서 전통사회의 공동체성과 근대 시민사회의 공공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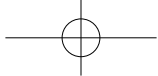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역사에는 연속성과 단절이 함께 존재한다. 이는 한국 근대사도 마찬가지이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의 공공성의 운명은 좀더 복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즉 전통적인 공동체는 해체되었지만 전근대적인 가치는 여전히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근대화의 모순과 결합하면서 구조적으로 더욱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의 근대는 ‘식민지적 근대’로서 내용적으로는 ‘공공성 없는 근대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형은 매우 현대적이지만 실제 내용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이른바 한국 근대의 부정합 모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바로 공공디자인의 성격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공공디자인이란 기본적으로 근대 시민사회에서의 디자인의 한 양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근대적인 공공성 자체가 없는 사회에서 공공디자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공공디자인의 과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국의 공공디자인은 이중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디자인의 공공성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공공성까지도 창출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디자인의 성격과 공공성

흔히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격으로 ‘강한 국가’와 ‘악한 시민사회’를 든다. 식민지, 전쟁, 경제개발을 거치면서 국가는 점차 거대해졌지만 그에 비례하여 시민사회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는 근대화 과정을 통해 지나치게 성장한 ‘과대성장국가(Overdeveloped State)’로서 매우 억압적이면서도 계몽자적인 성격을 띤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국가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전쟁에서부터 헤어스타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디자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 디자인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디자인 진흥(Design Promotion)’ 정책이다. 디자인 진흥정책은 1960년대의 개발 드라이브 정책의 부산물로서 디자인을 경제개발이라는 국가 목표의 증속변수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국가 주도의 디자인 진흥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는 한국 현대디자인의 성격을 주조한 매우 강한 구조적 요인이었다.

디자인 진흥정책을 뒷받침한 것은 이른바 ‘미술수출’ 이데올로기였다. 1967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술수출’이라는 휘호를



하사(?) 하였는데, 이는 최고 지도자가 한국 디자인계에 내린 명령에 다름아니었다. ‘미술수출’은 한국 현대 디자인 이념²의 창설 효과를 가지며 오늘날까지도 거의 유일한 디자인 이데올로기로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 주도의 디자인 진흥은 1970년대 이후 민간 부문의 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축소되지만, 그러나 한국과 같이 강한 국가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이 국가 정책에 영합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 간의 갈등은 잠복되어 있을 뿐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현대 한국은 식민지 유산을 계승한 지배 그룹과 경제 개발을 최고의 이데올로기로 삼은 집단에 의해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한국 디자인계 역시 이러한 이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런 경우 사회 일반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에서의 공공성은 인식되지도 실천될 수도 없는 낯선 가치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렇게 보면 2000년대 들어와 불기 시작한 공공디자인 붐은 다소 기이한 느낌을 준다. 지난 수십 년간 사적 디자인만이 존재하던 한국 사회에서 공공디자인의 대두는 그 자체로 반가운 것임에 틀림없지만, 문제는 그것을 주도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1960년대부터의 디자인 진흥정책은 산업 관료와 ‘교수-디자이너’³들의 협력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들이야말로 디자인 진흥 세력의 중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들이 바로 그 디자인 진흥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은 분명 모순된 일이다. 국가주의에 기반한 디자인 진흥정책은 공공디자인과는 그 이념에서나 실천 형태에서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디자인 진흥정책이 국가 중심적이라면 공공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들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은 또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의 익숙한 디자인 집단이 협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거기에 시민사회적인 문제의식과 실천이 끼여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 정책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경우에도 공공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정치가와 디자인 전문가들의 결합에 의해 ‘위로부터’ 추진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진정한 공공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근래 일련의 국가 주도의 공공디자인 정책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사유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뼈저리게 증명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한국의 근대화가 공공성을 잉태하지 못했으며, 디자인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최근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시민사회와 디자인계 내부로부터의 비판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의 단초를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마도 한국 디자인의 공공성은 훨씬 더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의식과 실천에 의해서만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디자인의 공공성은 여전히 그 성과를 말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아포리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생각하는 공공성과 디자인

공공디자인은 디자인으로 구현된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결국 공공디자인은 한편으로는 디자인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의 디자인은 그러한 공공성을, 아니 한국 사회 자체가 그동안

2) 서구의 근대디자인 이념이 윌리엄 모리스나 발터 그로피우스 같은 지도적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도된 것에 비하면 한국의 현대디자인 이념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권력자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한국 디자인이 국가 권력의 하위부문이었을 뿐 상대적 자율성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디자인 서울’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3) 한국 디자인계는 크게 디자인 교수와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디자인 교수, 즉 ‘교수-디자이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한국에서 교수-디자이너는 단지 교수인 디자이너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대학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각종 국가 정책과 디자인 비즈니스에 관계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한국의 디자인 진흥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 관료와 ‘교수-디자이너’의 협력에 의한 것이다. ‘교수-디자이너’를 ‘프로페시아너(Profesigner)’라고 부른다면, 정치가-디자이너는 ‘폴리자이너(Polisigner)’라고 부를 수 있다. 최근 국가 주도의 각종 공공디자인 정책과 프로젝트에는 ‘교수-디자이너’를 넘어서 ‘정치가-디자이너’, 즉 ‘폴리자이너’가 등장하여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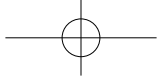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근대적 공공성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한국의 현대 디자인은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디자인 진흥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를 위한 디자인으로 치달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의 공공성이란 생각해볼 주제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도 일정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면서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디자인에서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개발국가를 넘어선 전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배제된 공공성에 기반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과제를 던진다. 따라서 이제는 탈개발국가를 지향하면서 디자인과 공공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 이전에 전통사회의 공동체성과 현대사회의 공공성의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연속선상에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럴 때 공공디자인에서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도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 공공디자인의 전통과 역사성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한동안 너무나 없이 두바이가 어떠니 빌바오가 어떠니 하고 떠들어대었다. 모두 앞뒤 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세계적인 디자인 명소라고 불리는 대상들에 대한 순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던가. 도움은커녕 결국 몇몇 바람잡이들에 의한 또 한 번의 집단행동에 지나지 않지 않았던가. 그야말로 21 세기의 빨치대에 다름 아니었다. 두바이와 빌바오를 배우자고 떠들던 자들은 바로 저 디자인 진흥세력의 후예들이다. 그들에게는 디자인이 갖는 전통과 맥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눈과 손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또 한 번의 소외된 발전으로 우리를 끌고 갈 뿐이다.

눈을 감고 옛날 동구박의 정자나무를 떠올려보자. 거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인들이 장기두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두바이나 빌바오가 아니라 정자나무에서 우리 공공디자인의 상(像)을 그려보는 것이 과연 엉뚱한 일일까.

* 이 글은 〈공공디자인엑스포 2010 심포지엄〉(2010년 12월 16일)에서 발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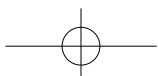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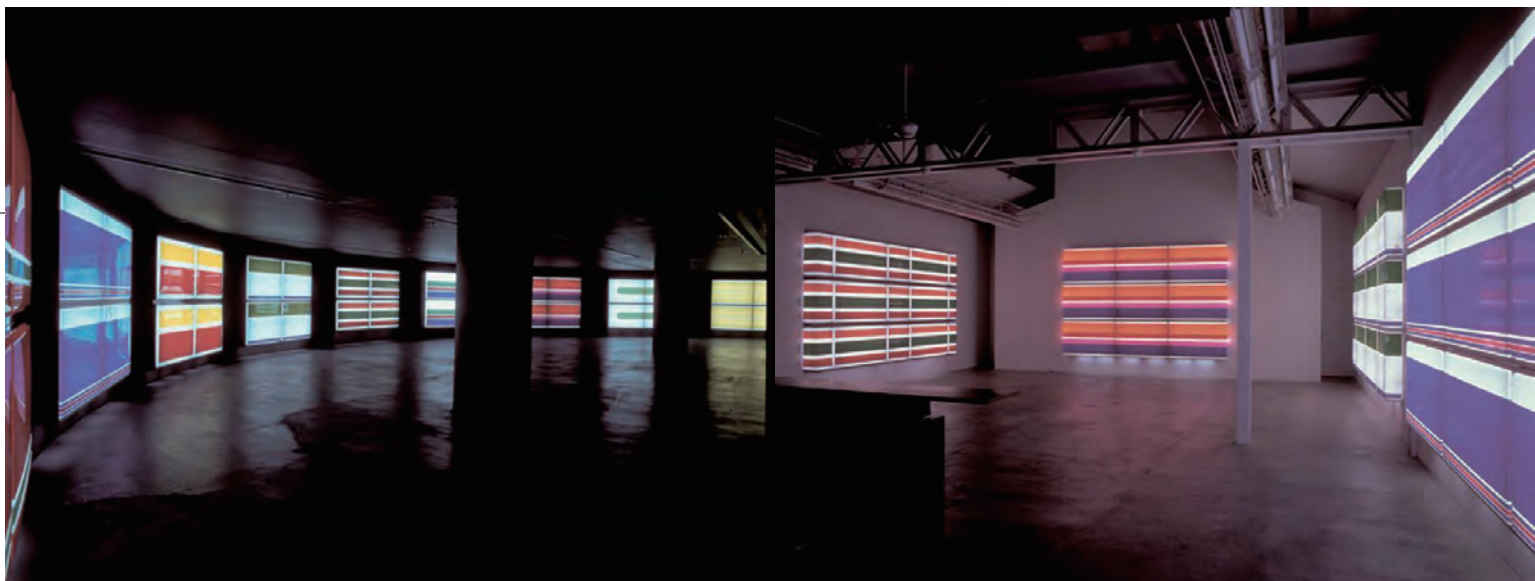
3331 아트 치요다 프로젝트 소개

마사토 나카무라 | 3331 아트 치요다 디렉터

CVS project
QSC + mV project

1996~

東京、広島、トロント、
ロンドン、ペニス、シドニー他





AkihabaraTV project

1998~2002

commandN

東京、台東区上野→千代田区外神田



3331 ARTS CYD

3331 紹介 2

施設名称



英語表記)
3331 Arts Chiyoda
日本語表記)
アーツ千代田 3331

延床面積: 7239㎡
階数: 地下1階地上4階
構造: RC造 一部鉄骨造

運営団体コンサートAについて

- 代表: 清水義次
経営ディレクター、中村敦人
- 住 所
東京都千代田区外神田6-11-14 11F
- 設立年月日 平成20年3月24日
- 社 員 数
■資本金 1,000万円
- 主 営 業 務
■主 営 業 務
■主 営 業 務

事業コンセプト

「3331」はアーティストが主導して運営する新しい形の参画交流・領域横断型アートセンターです。かつては教室だった20室の活動スペースには、アートギャラリーや教育機関、デザイン、建築、地域交流などの次世代を担うニューリーダーたちが入居しています。アートに限定しない様々な領域の活動が発生することで、それぞれが相互に影響し合う創造の現場となることを目指します。

事業内容

企画部門

主催事業



第一線で活躍するアーティストによる展覧会をはじめ、誰でも参加できる千代田市内外などアートを中心にさまざまな展覧会を開催しています。

共催・協力事業



アートフェアからデザインフェス、アートプロジェクトなど1週間5000人の来場者を誇る展覧会を主催・共催しています。

委託事業



運営者を中心とした企業・団体の委託事業。千代田市の魅力を発信する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するほか、千代田市と連携した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しています。

地域創造事業



3331のプログラムは文芸・スポーツ・音楽・ダンス・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など、千代田市と連携した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しています。

スクーリング事業



学生から社会人、企業まで一貫して「ものづくりの楽しさ」を伝えるためのスクーリング事業を展開しています。

国際文化芸術交流事業



アジアを中心とした国内外の若手アーティストを招き、交流・展示・ワークショップなどを実施しています。

ワークショップ事業



一般市民と国内外のアーティストが一緒に「ものづくり」を楽しむための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ています。

東北復興支援事業



復興支援を支援する「わがプロジェクト」では無料で利用できるスペースの提供や、復興支援を支援するための活動を行っています。

施設管理部門

テナント賃貸事業



約300のギャラリー、クリエイティブ・オフィスを中心としたテナント入居。ほかにも店舗・レストラン・カフェ・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などを実施しています。

スタジオ賃貸事業



自分のアトリエをもつ千代田市で24時間制作できる、最新の設備が揃ったアート・スタジオを提供しています。

レンタルスペース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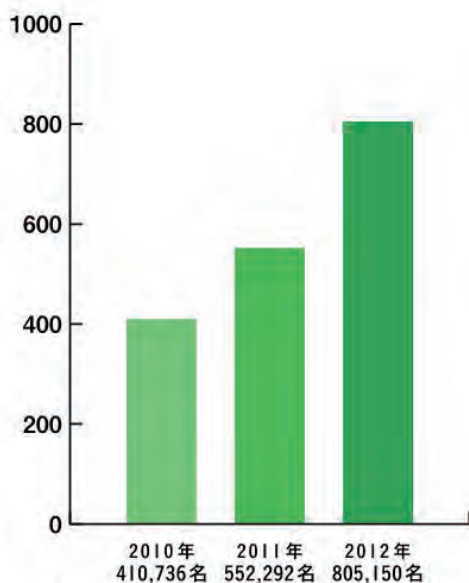
アーティスト、クリエイターから一般市民まで幅広い層から利用される。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ワークショップ、イベントなどを実施しています。

屋上菜園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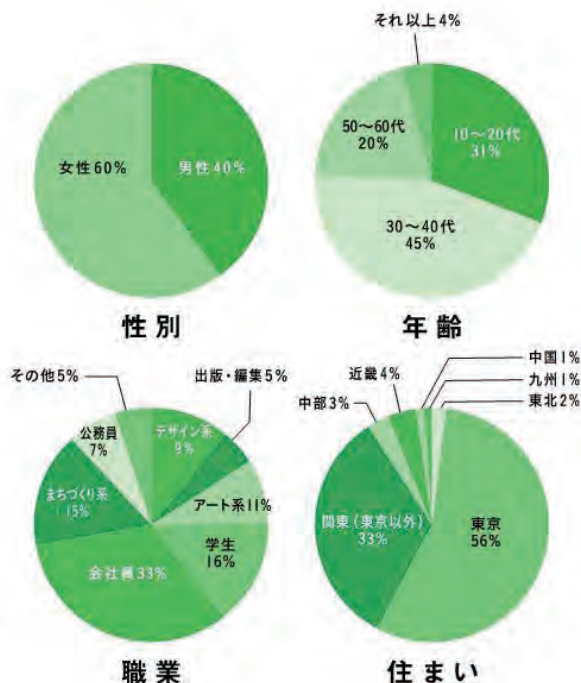


一般市民にも大人気の屋上菜園。ハロウィン・クリスマス、お正月・お花見など、様々なイベントを実施しています。

관람객 데이터



入場者累計: 1,768,178人





**치요다 구민 · 지역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유발**

3331과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 커미션 워크 아티스트

3331 Arts Chiyodaでは、2010年の開館当初より、3名のアーティストを「コミュニケーション・アーティスト」とし、継続的なアートプロジェクトや作品制作を3331とともに取り組んでいす。「明日創縁プロジェクト」を企画して迎えた日比野晃彦氏、「かえっこ」という仕組みを築きた藤沼志氏、空を飛べるシステム「オープンズメイ」などを展開する八谷和彦氏の3名はいずれも多くの人間との関わりがなかでプロジェクトを実現させるアーティストです。年間を通してプロジェクトを行なうほか、メインギャラリーにてそれぞれの展覧を開催しています。



日比野克彦
ひびの・かつひこ



藤浩志
ふじ・ひろし



八谷和彦
はちや・かずひこ

1958年、岐阜県岐阜市生まれ。アーティスト、東京藝術大学美術学部絵画学科教授。1995年にベネチアビエンナーレに出品する際、国内外でも喝采を多量に獲得。地球の心と受け取り手の心とに在る力をテーマに膨大な展覧会を開催して、芸術の社会的機能を参加者が発見していくようなアクションを起こす。またアートとスポーツの文化融合型の事業を推進し、日本サッカー協会理事を務める。現在は医療支援活動「HEAR HEAR VISIONING」を立ち上げ、創作の力を取り戻すきっかけを作り、人と人を繋ぐことを目指す。

1960年、鹿児島生まれ。鹿児島市立美術科
卒業。代表、美術作家。青森県十和田市市
代美術顧問。京都市立芸術大学学
業、現代アートを研究を海外及び都府
として、アパニユーニ（国）立芸術家
事務所。都府民務事務局勤務を経て1991
年、鹿児島県立美術会を設立。地域美
術・造形活動、芸術活動を通じて、本
館の建築を代表する美術家のアート・エ
ンジンを通じて、美術界のアーティスト
の現場で「対話と表現」を追求する
活動。福岡県糸島市在住。神戸大学学
術顧問。著作、人と人を繋ぐことを
めざす。

1986年、従業員を資本金に生まれ、メディア・アーティスト、九州芸術工科大学、九州大学工学部工学部、筑波大学理工学部、個人TV放送局「SM-TV」、コンシューマー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を制作する会社である。作品は「朝霧夜叉堂マン」や「来ることは怖いこと」と、何種類かミニエレクトロニクスシリーズ、ジェット・エレクトロニクス・システム・ボード「エポック」やパーソナルメディアシステム「エポック」など、多岐にわたるものがある。コンピュータ・システム・開発会社である。南の太平洋のワタナベ・ワタナベを行なう会社「バウハウス」の代表である。

日比野克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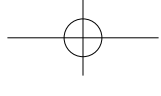


**내일모레 나팔꽃
프로젝트**

2003年より始まった「明後日朝顔プロジェクト」は、2012年現在、全国25地域が参加するこのプロジェクトは、育てた朝顔の種を各地に運び、人と人、地域と地域の交流を生んでいます。

333| Arts Chiyodaは東京で唯一の拠点として2010年4月より参加し、以降毎年、千代田区立昌平小学校の1年生と一緒に朝顔を種から育て、収穫しています。ウッドデッキにツルのカーテンが下がり、青や紫の花が咲くその姿は、当館の夏の風物詩として定着しつつあります。





藤 浩 志



「かえっこバザール」(2011年8月21日)

카앳코

藤浩志氏が2000年に発案したおもちゃを交換するしくみ「かえっこ」。全国1000カ所以上で行われているこの「かえっこ」を常時行える初めての場所として、3331 Arts Chiyoda内に「かえるステーション」を設置しました。ここには毎日、多くの子どもが遊びにきています。

また定期的に「かえっこバザール」を開催したり、近隣の児童館や小学校で「出張かえっこ」を行ったり。「遊び」から子どもの創造性や地域のコミュニティケーションを醸成する「かえっこ」は教育的にも注目されています。

「かえっこ」とは？

藤浩志が発案した遊ばなくなったおもちゃを使って、地域にさまざまな活動をつくり出すシステム。おもちゃを持ってくると、その内容に応じて子ども通員「カエルポイント」が発行され、そのポイント数で園のおもちゃに交換できる。子どもたちの自主的な遊びから、教育、環境、リサイクル、福祉関係性化、地域活動、国際交流など地域が抱えるさまざまな問題に対応する動きを誘発している。

■かえるステーション

「かえっこ」がいつでもできる場所。子どもの自発性を促すだけでなく、ワークショップを行うお母さんたちによるグループが生まれるなど、地域の交流の場にもなっています。



■出張かえっこ

近隣の小学校(写真は2012年7月21日に訪れた千代田区立西平小学校にて)や郡内の公園におもちゃを持って行き、3331スタッフが「出張かえっこ」を行うことも。

■かえっこバザール

3331 Arts Chiyodaにて定期的に「かえっこバザール」では、毎回たくさんの子どもや大人が集まり活気にあふれます。



31

12

藤 浩 志

후지 히로시 미술전 「센트럴을 바꾸는 스테이션」 ~왜 이렇게 장난감이 모여지는가?

本展は「かえる(変える/運ぶ/換える/買える)」をキーワードに、13年続く「かえっこ」により集まった約5万ものおもちゃを素材とし、インスタレーションやワークショップを行います。そのほか、プラスチックや針金など、これまで藤氏が生活や活動のなかで収集した膨大な数の素材や、それらをつなぎ合わせた作品、各地で巡回・発生してきた地域活動

の紹介、入れ形式による作品販売(サイレント・オークション)を行なうなど充実の内容になりました。

会期 2012年7月15日(日)~9月9日(日)
会場 1Fメインギャラリー
主催 3331 Arts Chiyoda
協賛 株式会社青芝堂
協力 株式会社ナカダイ、株式会社制作、RPO 近人アラス・アーツ、株式会社神楽大商店、MOTO YU GALLERY
<http://fujihiroshi.jp>



作品「熊鷹〜なぜこんなにおもちゃが集まるのか〜」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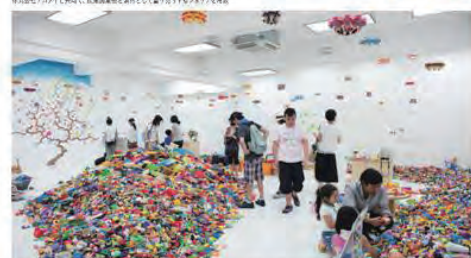
環境をテーマにしたワークショップ。会期中はイベントも多数開催



トークイベント「中田オリザ×藤浩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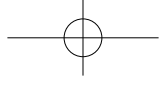


株式会社ナカダイと協賛で、近隣商業施設を素材として作り出す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



会場内に常設「かえっこ」ができ、ワークショップを行えるエリアも

34



칸다(神田)의 “맛”을 나누는 지역의 이벤트에 참가

毎年、3331 Arts Chiyodaに隣接する練成公園では、当館も所屬する五軒町会の秋の催し「五軒町ファミリー会」が行われています。焼きそばやフランクフルトなどの出店に、パン食い競争、縄引きなどの競技、ビンゴゲームまで町会の人々が一丸となって取り組む行事に、当館も毎年参加しています。3331 Arts Chiyodaからは毎年、きりたんぼ餅や生ハム約200食を提供。また新年にはご近所の餅つきにも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参加履歴

2010年11月3日(水・祝)
『第21回五軒町ファミリー会』参加

2011年11月3日(木・祝)
『第22回五軒町ファミリー会』参加

2012年11月3日(土・祝)
『第23回五軒町ファミリー会』参加

2013年1月27日(日)
『柴佐亀餅つき大会』参加

15

고잔초(五軒町) 패밀리회



秋田から応援も届けて、3331スタッフがきりたんぼ餅を振る舞った

예사키(柴佐亀) 떡차기 대회



ご近所の餅つきにも参加

16

추억이 깃든 배움의 자리로서 지역의 모임장소

約8年前まで区立練成中学校(現・3331 Arts Chiyoda)は地域の中心的存在でした。この周辺に古くから住まわれている方は、いまでもこの校舎に親しみを持って利用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当館が誕生してからは毎年、練成中学校の同窓会や町会福祉部のクリスマス会に利用されているほか、毎週火曜日には「ふれあいサロン」という近隣のお年寄りのお昼しめの会場としても利用されています。また、当館は近所の子どもの遊びの場にもなっています。

2010年～ 毎週火曜
『ふれあいサロン「ドレミの丘」』

2010年～ 毎年9月
『練成中学校同窓会』

2010年～ 毎年12月
『五軒町会福祉部 &
ドレミの丘のクリスマス会』

17

후래아이사롱 '도레미의 언덕' 2012년11월8일



렌세이 중학교 동창회 2010년9월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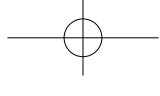
고잔초 초회 복지부 & 도레미의 언덕회 크리스마스 파티 2012년12월18일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18



동네(지역)에 창조력을 불러내는 워크숍

隣接する公園内の樹木に飾るクリスマスオーナメントをついたり、
酒田駅・三春高校の街枝のつぎ木をするワークショップ、区内のさまざまな福祉施設でお年寄りを対象に行なった『きりがみ会』、また盛大
出身の3331スタッフが自ら指導する絵画教室など、地域の方々に向けた
ワークショップや教室を多数開いてきました。普段は芸術に触れる
機会のない方々も、徐々に創作に対して真摯に取り組みながら3331
スタッフも成長しています。

2010年～ 毎年11月～12月
『クリスマス飾り』

2012年4月6日
『さくらのつぎ木ワークショップ』

2012年9月～11月
『きりがみ会』

2012年4月～ 毎週火曜
『絵画クラブ』

19

크리스마스 트리 2011년11월19일



벗꽃 점목 워크숍 2012년4월6일



키리가미 회 2012년8월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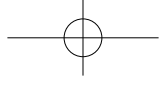
회화 클럽 2013년2월4일



20



창조력을 자극하는
문화예술활동
자기표현 · 교류의 기회를 생산



복지×表現×미술×문 포코라토 전국 공모전

「포코라토」とは、「福がいのある人・ない人・アーティストが相互に影響し合い、自由な表現の場をつくる場」を指します。

現在の「福祉」とは「表現」という個性が欠けており、制度化した「美術」には「魂」の缺けが欠けています。本展は福祉と美術を融合させることにより、純粋で切実な人間力に敬意を表し、その感性を世界に輝かせる。『ポコラト全国公募展 vol.3』では、作品部門の他にワークショップ部門を新設。ポコラトの理念である「自由な表現の場」を参加者で共有し、「賞賛会」の枠を超える試みとなりました。公募展開催中には審査員と発案者投票によって受賞作品を決定。後日、受賞者によるグループ展も行われます。

2011年1月28日(金)～2月10日(木)
ポコラト全国公募展 2011

(応募数 1,028作品より 256作品を選出)

＜審査員＞ 藤部正 (武蔵野大学美術学部長)
佐藤健二郎 (東京国立近代美術館研究員)
中村政人 (東京藝術大学准教授 / 3331 Arts Chiyoda 統括ディレクター)

2011年9月3日(土)～19日(月・祝)
ポコラト全国公募展 2011 受賞者展「パッ」の交信

2011年12月3日(土)～25日(日)
ポコラト全国公募展 vol.2

(応募数 1,267作品より 237作品を選出)

＜審査員＞ 大木裕之 (アーティスト/映像作家/現代美術家)
藤部 (現代美術家/京都造形芸術大学美術工芸学部長)
佐藤健二郎 (東京国立近代美術館研究員)
中村政人 (東京藝術大学准教授 / 3331 Arts Chiyoda 統括ディレクター)

2012年9月16日(日)～30日(日)
ポコラト全国公募展 vol.2 受賞者展

2012年12月14日(金)～2013年1月20日(日)
ポコラト全国公募展 vol.3

(応募数 1,332作品より 214作品を選出)

＜作品部門審査員＞ 藤部 展 (美術評論家)
田中マサトシ (デザインディレクター/キュレーター)
佐藤健二郎 (東京国立近代美術館主任研究員)
中村政人 (東京藝術大学准教授 / 3331 Arts Chiyoda 統括ディレクター)
＜ワークショップ部門審査員＞ 大月ヒロ子 (IDEA, INC. 代表取締役/ワークショップ部門審査員)
藤部正 (美術家/十和田市現代美術館館長)
中村政人 (東京藝術大学准教授 / 3331 Arts Chiyoda 統括ディレクタ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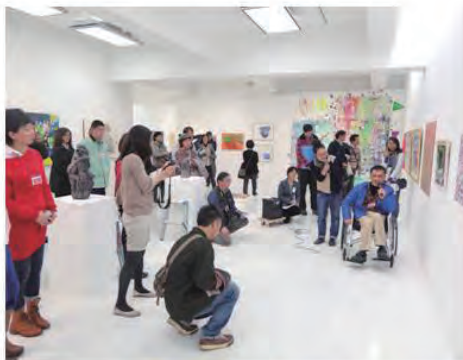


▲【審査員賞 大木裕之選出】
福田麻子「舞踏」
[ポコラト全国公募展 vol.2]

▲【審査員賞 中村政人選出】
田中 昭「はし」
[ポコラト全国公募展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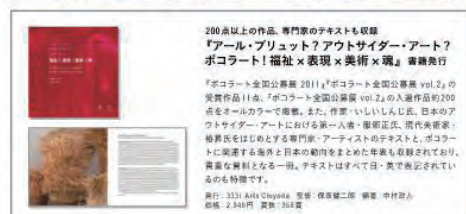
▲【審査員賞 中村政人選出】
中村政人「はし」
[ポコラト全国公募展 vol.2]

24



会期中に開催される出張によるトークワークショップも、多くの参加者でにぎわいます。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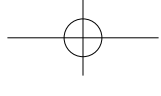


200点以上の作品、専門家のテキストも収録
『アール・ブリュット?アウトサイダー・アート?』
ポコラト! 福祉×表現×美術×文 書籍発行

『ポコラト全国公募展 2011』、『ポコラト全国公募展 vol.2』の
受賞作品11点、『ポコラト全国公募展 vol.2』の入選作品約200
点をオールカラーで掲載。また、作家・いしいしんじ氏、日本のア
ウトサイダー・アートにおける第一人者・藤部正氏、現代美術家・
松本浩一氏をはじめとする専門家・アーティストのテキストと、ポコラ
トに関連する海外と日本の動向をまとめた年表も収録されており、
貴重な資料となる一冊。テキストはすべて日・英で表記されてい
るのも特徴です。

発行: 3331 Arts Chiyoda 定価: 藤部健二郎 著 中村政人
価格: 2,840円 頁数: 368頁

26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예술·창조의 장 치요다예술제

「千代田芸術祭」は広く市民に開放された芸術・創造の場を目指して開催しています。誰でも出品できる作品展示部門「3331 アンデパンダン」、ジャンルにとらわれない自由な身体表現を実現するステージ部門「おどりの場」、幅広い分野のアーティストたちがお店を作り、直接販売を行うマーケット部門「Whole Arts Market」で構成されています。アーティストやアート関係者だけでなく、市民を巻き込んだ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育むイベントとして開催されています。

2010年9月8日(水)～19日(日)
千代田芸術祭「3331 アンデパンダン」
(約350点の応募)

2011年3月18日(金)～28日(月)/前期
2011年4月1日(金)～11日(月)/後期
3331 アンデパンダン・スカラシップ展

2011年9月3日(土)～19日(月・祝)
千代田芸術祭 2011
(約300点の応募)

2012年1月7日(土)～29日(日)
3331 アンデパンダン・スカラシップ展 vol.2

2012年9月16日(日)～10月8日(月・祝)
千代田芸術祭 2012「3331 EXPO」
(約300点の応募)

2013年1月26日(土)～2月17日(日)
3331 アンデパンダン・スカラシップ展 vol.3



전시부분 「3331 안데판단」

展示部門「3331 アンデパンダン」は、熟慮なく誰でも参加できる展覧会です。毎年約300点もの応募があり、これまでの参加作家は約200名を超えています。さらに「3331 アンデパンダン」では作家の支援を行うスカラシップ制度を設け、ゲスト審査員と来場者投票によって選出された作家者はメインギャラリーでグループ展を開催します。



【中村敏人選出】YETTA (千代田芸術祭「3331 アンデパンダン」)



【八谷和彦選出】夢夢大樹 (千代田芸術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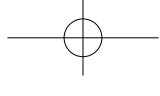
【橋本野矢選出】Sensapara-Nosuro (千代田芸術祭 2011)



【クワカボリウツタ選出】夢夢大樹 (千代田芸術祭 2012「3331 EXPO」)



【包蔵者の演出】Hoshino (千代田芸術祭 2011)



3331 Arts Chiyoda 개관기념 제2탄 사사키 코세이 전 「OK, PERFECT, YES」

1960年代に前衛芸術運動の最前線で活躍し、現在群馬県に自らの手で建設したアトリエで精力的に絵筆をふるう佐々木耕成の画廊。82歳を迎えた作家が40年ぶりに新作を発表しました。また、佐々木耕成は2012年に開催した「TRANS ARTS TOKYO」(詳細はP38参照)でも、滞在制作を行い、3331 Arts Chiyodaとの交流が続いています。

会期：2010年4月23日(金)～2010年5月23日(日)
主催：群馬県芸術活動団体コマンドN
共催：3331 Arts Chiy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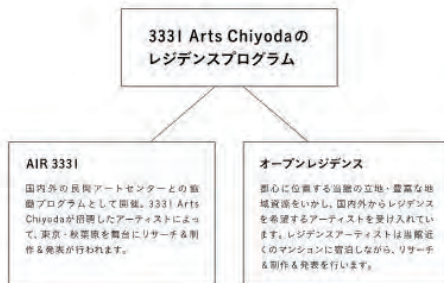
31



32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일본국내외의 지역과 연결되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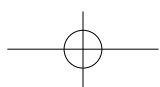
3331 Arts Chiyodaでは、世界中のアーティストやクリエイターを対象とし、滞在・制作・発表が行える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をスタートさせました。当館がアーティストを招喚する「AIR 3331」と、レジデンスを希望するアーティストを受け入れる「オープンレジデンス」の2つのプログラムがあります。滞りするアーティストは3331 Arts Chiyodaを通して新しいネットワークを築くことができ、ワークショップやリサーチを行うことで、参加する地区にとっても新しいアイデアや刺激と触れ合う機会にもなっ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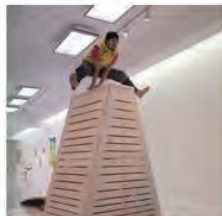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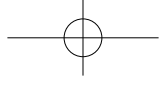


33



34





채류제작 성과 발표 「AIR3331」 전

国内外의民間아트센터와協働し,各機關から推薦された9名のアーティストたちが約1ヵ月の滞在制作を行いました。本展はその成果発表として企画された展覧会です。会期中には,多様な価値観を交換するべく,アーティストらによるワークショップも行われました。

【国内参加作家】

久野浩方(北海道) 神奈川芸術大学教員, S-AIR(事務)
湯野智史(東京) Art Center Oginaka(事務)
菊田孝平(福岡) Studio Kura(事務)

【国外参加作家・キュレーター】

アリソン・ローチング(オーストラリア) Saw Art Collectives(事務)
カサハラ・タムラ(シンガポール) Sakae Sanyo(事務)
ジェレミー・ニュー(シンガポール) The Artist Village(事務)
ジェンメイズン・ロビンソン(シンガポール) Japan Contemporary Art Center(事務)
リ・チュンワン(香港) Le Space(事務)

会期: 2011年2月25日(金)~3月13日(日)
主催: 一般社団法人東京芸術活動団体コマンド
実行: 平成22年度文化庁芸術家在外研修員・美術家派遣事業
協賛: オーストラリア芸術振興・インタナショナル展覧会・シンガポール芸術振興

3331 アーティスト イン レジデンス プログラム 성과 발표 AIR3331 전 vo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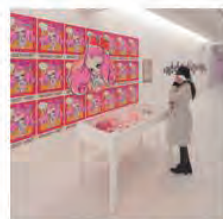
熊本組、西山美奈コ、タムラサトルの3名のアーティストが滞在し、3331 Arts Chiyoda周辺の地域・人・文化・歴史をそれぞれの視点で見つめました。熊本組からは、牧瀬広、神田の街を歩き「昔の風景」をテーマにプロジェクトを展開。西山美奈コは独自の観望で「アキバのワイワイ」を展覧。タムラサトルは秋葉原の電気街で素材を採集、インスタレーションを発表。アーティストたちによってこの街の新たな姿が浮かび上がる展示となりました。

【国内参加作家】

熊本組/西山美奈コ/タムラサトル

会期: 2012年2月3日(土)~19日(日)

主催: 千代田区



35

오픈 레지던스 채류 아티스트



エリザベス・スモラーズ
(アメリカ)
【滞在期間】
2011年9月10日~24日



ルシー・キム
(アメリカ)
【滞在期間】
2011年9月5日~24日



ジャズミン・パセジャ
(インド)
【滞在期間】
2011年9月25日~11月5日



ジェ・ジョン
(中国)
【滞在期間】
2011年9月25日~11月5日



フリラ・タニア
(インドネシア)
【滞在期間】
2011年9月25日~11月5日



山岡佐紀子
(日本)
【滞在期間】
2011年9月25日~11月5日



マーク・ダーカン
(アイルランド)
【滞在期間】
2010年12月1日~14日



ジェームズ・ドイチャー
(オーストラリア)
【滞在期間】
2011年1月16日~2月3日



アンドレアス・ディ・サンティアゴ
(スペイン)
【滞在期間】
2011年4月24日~5月9日



サラ・ワレン&ピーター・ウィリアムズ(カナダ)
【滞在期間】
2011年5月7日~7月6日



モサ
(ミャンマー)
【滞在期間】
2011年8月31日~9月16日



スリージャ・ロイ
(インド)
【滞在期間】
2011年9月10日~10月9日



キャシー・ローダンバック
(オーストラリア)
【滞在期間】
2011年11月29日~12月25日



ルーカス・チャーンサイド&ビ
アパ・ル・ニコ(オーストラリア)
【滞在期間】
2011年12月28日~2012年1月30日



キー・ウィンター
(イギリス)
【滞在期間】
2011年10月10日~11月13日



エロディ・シルヴァスティン
(フランス/オーストラリア)
【滞在期間】
2012年4月1日~30日



ジュリー・フォルグ(カナダ)
【滞在期間】
2012年6月8日~30日



ロブ・ポール
(オーストラリア)
【滞在期間】
2012年6月11日~7月31日



サム・ドクター
(オーストラリア)
【滞在期間】
2012年7月31日~8月29日



ジュリー・ガラント
(アメリカ)
【滞在期間】
2013年1月31日~2月23日

36

“만드는”에너지를 집약시켜 사람과 지역을 아트로 연결한다 TRANS ARTS TOKYO

「TRANS ARTS TOKYO」は、神田の街に「神田コミュニティアートセンター」をつくるためのプロローグです。ジャンル・地域・世代・意識を超えてさまざまな人が集い、記憶と期待を共有するアートプロジェクトを展開することで、神田が東京のクリエイションの中心地となり、新たな東京の名所となることを目指します。

2017年のコミュニティ・アートセンター設立に向け、2012年に移転が決定した旧東京電機大学校舎11号館(地下2階/地上17階)をまるごと使用した展覧会を開催。約300名ものクリエイターが参加し、約1万人が来場しました。

会期: 2012年10月21日(日)~11月25日(日)

主催: 東京藝術大学(美術学部 絵画科 油画専攻)

共催: 神田コミュニティアートセンター構想委員会

(委員長: 佐藤一郎(東京藝術大学美術学部絵画科長))

運営: 一般社団法人東京芸術活動団体コマンド

(東京都千代田区外神田6-11-14)

協賛: 住友商事株式会社、株式会社大林組

後援: 千代田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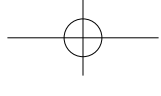
協力: 3331 Arts Chiyoda

37





2013-05-27 오후 1:58:34



3331 GALLERY

新建築の若手作家を取り上げ、気軽に作品を購入できるギャラリーとして誕生。若手作家の発表・作品販売できる場として機能し、彼らの制作もバックアップします。



#001
FRICTION
アンタライヤー
2010年9月11日(土)～
9月27日(月)



#002
Roadside Story
坂道降元
2010年9月29日(水)～
10月25日(月)

40



#003
common / resignation /
OK(memorial) | 天野亨彦
2010年10月29日(金)～
11月29日(月)



#004
送物寄生 - Gain from life
高倉吉雄
2010年12月1日(水)～
12月26日(日)



#005
心ここにあらず
藤原彩人
2011年1月8日(土)～
2月7日(月)



#006
闇を穿つ
西尾美也
2011年2月11日(金)～
3月14日(月)



#008
形を磨ぐ
岸川 誠
2011年4月7日(日)～
4月9日(日)



#009
デナリ森
今村洋平
2011年7月10日(日)～
8月23日(水)



#010
地理に、リズム
戸田祥子
2011年9月3日(土)～
10月12日(水)



#010
線小路のミュージーション
岩井 俊
2011年11月26日(土)～
12月23日(日)



#012
寝てる世 - 緑画からの発信 -
山田健二
2012年1月13日(金)～
2月12日(日)



#013
藤原良彰の「絵の展示」
藤原良彰
2012年2月23日(水)～
3月25日(日)



#014
DOUBLE NATURE
池田由紀
2012年4月13日(金)～
5月27日(日)



#015
My Sputnik
吉澤和也
2012年6月9日(土)～
7月22日(日)



#016
アニマ
西村知也
2012年7月28日(土)～
9月16日(日)



#017
キャンセル
武田晴介
2012年9月22日(土)～
11月4日(日)



#018
あってないようなもの
久村 孝
2012年11月14日(水)～
12月24日(月)



#019
SS100
山田健二
2013年1月12日(土)～
2月24日(日)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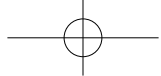
3331 Arts Chiyoda의 또 다른 역할 지진방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바라보다

3331 Arts Chiyoda에隣接する練成公園は、今から82年前、関東大震災の復興計画に基づいて整備された公園です。2011年3月11日の東日本大震災発生時、外神田の避難所である3331 Arts Chiyodaには地域住民の方はじめ、帰宅困難者の受け入れも行ないました。

館内に入居するアーティストやクリエイター、これまで多くの展覧会やプロジェクトを通して広がった人々が呼びかけ合い、アートプロジェクトで培ったネットワークを支援活動のネットワークへと機能をシフトさせ、多くの復興支援プロジェクトが生まれていきました。

そして、3331 Arts Chiyodaを拠点とする復興支援プロジェクト「わわプロジェクト」は、活発な活動を継続しています。東日本大震災の復興支援だけでなく、発生が懸念されている首都直下型地震に備えるべく、積極的に活動を行なっています。





【活動評価】

平成22年度 芸術選奨文部科学大臣 新人賞（芸術振興部門）受賞

「コマンドN」「KANDADA」の活動を経て、3331 Arts Chiyodaを立ち上げた統括ディレクター・中村政人の活動が評価され、「平成22年度 芸術選奨文部科学大臣新人賞（芸術振興部門）」を受賞しました。

【贈賞理由】

アーティストとしての活動と並行して様々な公共的プロジェクトを創設した中村政人は、平成10年より千代田区をベースに若い表現者たちの場を開き「コマンドN」（平成10年・秋葉原）や「KANDADA」（平成17年・神田）の活動を経て、平成22年に廃校となっていた区立錦成中学校の再利用計画として「アーツ千代田3331」を開設。多彩な活動が集まるプラットフォームを形成し、ディレクターとして目覚ましい活躍を見せている。

2012年日本建築学会作品選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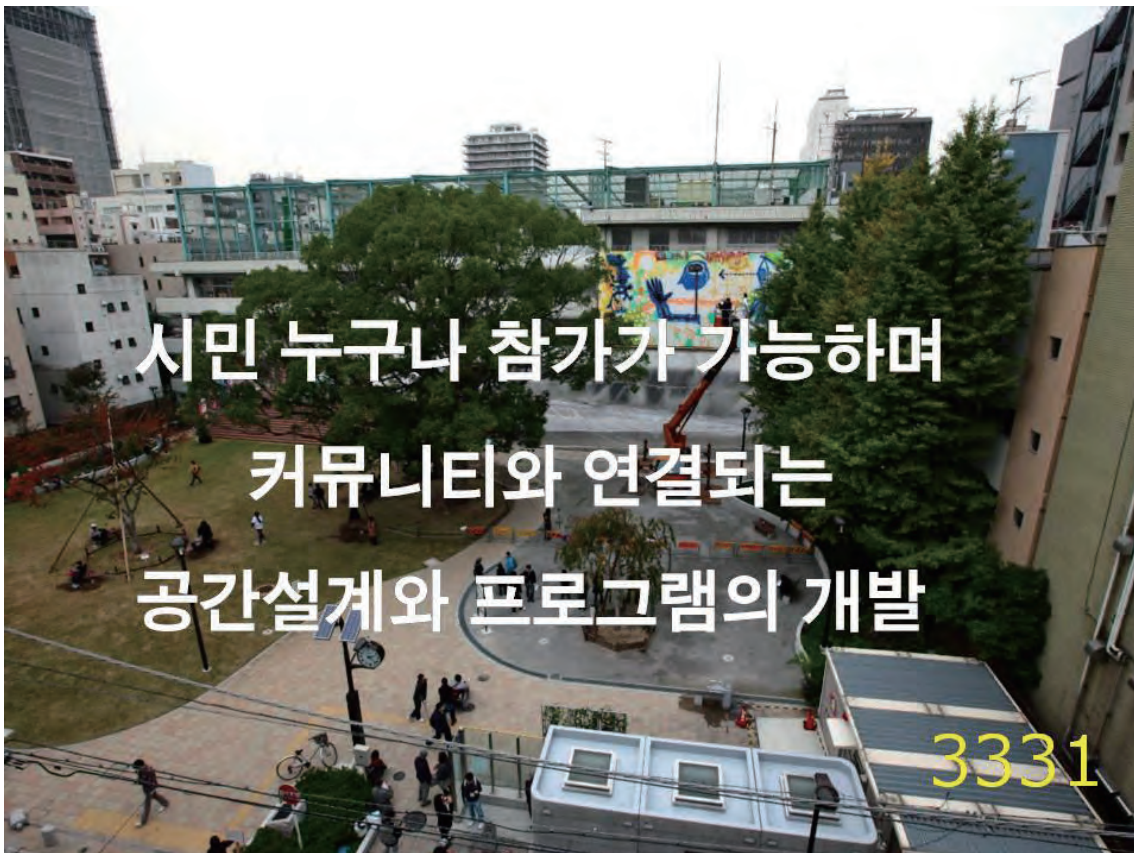
地元住民との協働によって計画された、隣接する練成公園との間の垣根を取り払い、アートセンターがよりまちに開かれたものとなっている点や、地元住民、作家、来訪者との交流やイベントが積極的に展開できている点が建築的に評価され、日本建築学会作品選奨に選出されました。

【2012年日本建築学会作品選奨受賞者】

3331 Arts Chiyoda 改修設計担当
佐藤慎也（日本大学准教授）
古澤大輔（メジロスタジオ一級建築士事務所共同主宰）
馬場兼伸（メジロスタジオ一級建築士事務所共同主宰）
黒川泰孝（メジロスタジオ一級建築士事務所共同主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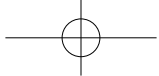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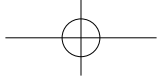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2周年を迎えた2012年5月、3331 Arts Chiyodaを築いてくださる皆様と記念撮影



시민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공간설계와 프로그램의 개발

3331





순수 × 절실 × 일탈

만드는 힘을 환기시켜
살아가는 힘을 뒷받침하는
순수하고 절실한 표현력
절망을 에너지로 바꿔
일탈을 촉구하는
창조적인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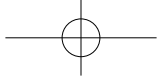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사회 포섭형 커뮤니티 아트 센터

영역이나 입장, 이성을 초월한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열린 표현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거리에 기능하는 사회포섭형
커뮤니티 아트 센터가 갈망되어진다.



거리와 사람이 함께 커가는 사회적인 장소의 만들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지구적인 규모로 거대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세계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특히 지진을 직접 체험한 일본은 우리들의 자연관, 종교관 등 생활관 그 자체를 성립하고 있는 근본적인 인자를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볼 새로운 사회적인 장소(소셜 필드)를 창조해 낼 필요가 있다.



TAP

Toride Art Project

강우영 | 흥익대 강사

TAP 는

토리데 아트 프로젝트 (TAP = Toride Art Project, 取手アートプロジェクト) 는 1999 년부터 시민, 이바라키현 (茨城県) 의 토리데시 (取手市), 동경예술대학의 삼자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트 프로젝트이다.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발표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예술과 접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토리데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해가는 것을 지향한다.

시민

토리데시 내 · 외로부터 주부, 퇴직 후의 남성, 직장인, 학생, 공무원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토리데시

토리데시 시의회 의원과 교육위원회 문화예술과의 직원이 운영 스텝으로써 참가하고 있다. 국가에의 조성 신청과 공공기관과의 연대, 시내 광고홍보지의 이용 설치와 운영 등의 현장작업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전반에 걸쳐 함께 활동하고 있다.

* 토리데시 (取手市) 는 이바라키현 (茨城県) 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69.96km², 동서 9.3km, 남북 14.4km 로, 도네강과 도네강의 지류인 코카이강의 2 대 하천과 녹지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JR JOBAN 선으로 우에노까지 35 분이 소요된다.

동경예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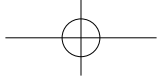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미대와 음대의 교원과 학생이 자주적으로 또는 수업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다. 교원은 프로젝트를 지휘, 어드바이스하며 시민과의 공동 기획에도 참여하고, 학생은 인턴이나 스텝, 또는 작가로써 참여하며 프로젝트의 운영과 작품활동에 대해 배우고 있다.

* 동경예술대학은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대학으로 미대와 음대로 구성되어 있다.

토리데 교지는 1991 년에 설립되었고, 미대 전체과의 학부 1 학년생과, 일부 학과의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다니고 있다. 교지 내에는 미대의 공통공방 (금공 · 목재조형 · 도장조형 · 석재), 동경예술대학 대학미술관 토리데관 등도 위치하고 있다.

TAP 시작의 경위

1999 년에 동경예술대학 첨단예술표현과는 토리데시로부터 토리데역 앞에 마련된 ‘스트리트 아트 스테이지’ 에 설치할 작품을



의뢰받았고, 여기에 첨단예술표현과가 토리데시에 방치되었던 자전거를 리사이클해서 설치하고, 설치된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돌아볼 수 있는 대규모 야외전시를 역으로 제안했다. 이 제안이 시에 받아들여졌고, 1999년 이 후에도 매해 계속되어 오면서, TAP는 시민, 대학, 행정이 삼위일체가 실시체제를 갖추고 현재의 형태로 성장, 진화했다.

주요활동

1999년부터 전국에서 특정테마에 관한 작품플랜을 모집하고 선발해서 대규모 전시를 개최하는 ‘공모전’과, 토리데시 재주작가의 활동을 소개하는 ‘오픈 스튜디오’를 주요사업으로 개최하여, 지역과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외에도 환경정비사업(유휴공간 활용사업, 벽화 프로젝트, 가스탱크 디자인경연)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인재육성사업(TAP 주쿠·2004~06년)·교육기관에의 아웃리치활동을 통해 지역의 교육 및 예술환경을 정비해왔다.

2010년도부터는 보다 장기적 시야에서 삶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해 가기 위해 TAP가 양성한 인재·노하우·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예술이 있는 단지’, ‘반농반예(半農半芸)’라고 하는 새로운 2개의 프로젝트도 시작되었다.

덧붙여 근래에는 한국을 비롯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과 아티스트의 상호파견(2008년~), 조사사업(2009년~) 등도 실시하고 있다.

공모전

2008년까지 격년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테마를 정하여 전국에 작품을 공모하고, 공모에 제출된 지원서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하여 출품작과 참가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아티스트들과 함께 지역 내의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대규모 전시를 개최해왔다. TAP의 공모전은 경륜도시나 베드타운 도시로 설명되던 토리데시의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를, 아트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젊은 예술의 도시라는 플러스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있다.

오픈 스튜디오

향토작가나 동경예대 졸업생을 비롯한 토리데시에 살고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그들의 아틀리에를 오픈하는 오픈 스튜디오에 참가하도록 유도하여, 아티스트에게는 그들의 작품과 활동을 외부에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예술작품의 제작현장과 작가의 생활환경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환경정비사업

오수종말처리장, 닫힌 상점가, 폐건물, 가스탱크 등을 프로젝트 및 관련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쇼핑센터 내의 비어있는 공간에 갤러리를 설치하여 수준높은 전시를 연중 개최하는 등 지역 내 유휴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왔다. 또 벽화 프로젝트와 가스탱크 디자인 등을 통해 도시 디자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

토리데시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참가하는 아동화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또 시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TAP 추천의 아티스트를 파견하여 특별수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인재육성사업

아트 코디네이터와 매니저, 지역의 문화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1년간의 인턴쉽 프로그램인 TAP 주쿠를 개설하고, 지역계 아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시 내·외의 다양한 전공과 입장의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이론과 현장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TAP 주쿠를 통해 육성된 인재들과, TAP 현장에서 인턴이나 스텝으로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TAP 경험자들은 지역계 아트 과프로젝트 분야의 전문가들로 성장하여, 전국의 지역계 아트 프로젝트와 문화예술관련의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반농반예 (半農半芸)

TAP 가 시내에 빌린 500 평의 농지를 주된 활동의 무대로 삼고, 방사선의 영향에 의해 오염된 토지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치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지금부터의 삶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 (食) 에 관한 워크샵이나, 예술과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스터디 등도 열고 있다.

예술이 있는 단지

생활속의 예술표현을 매개로 한 교류거점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토리데시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인 이노단지에, 2009 년에 'Tappino', 2011 년 10 월부터는 '이코이이노 +Tappino' 라는 활동거점을 개설하고 활동했다.

'이코이이노 +Tappino' 는 단지 자치회 및 시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모이는 세대교류의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소로, 토리데시 고령복지과의 휴게소 사업 (고령자수용형 보호시설) 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에 건축, 예술, 환경, 조명 등에 관련된 사람들이 합세하여, 다양한 시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며, 단지 내의 소프트 및 하드의 리디자인사업의 하나인, Tappino 부지활용을 위한 트로젝트 「단지 · 이노베이터즈 ·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다.

TAP 의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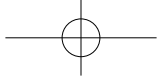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1) '예술의 도시 토리데' 라는 목표를 두고 시민과 함께 활동하고 실현해왔다. 기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프로세스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축해왔다.
- 2)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작가와 시민, 동경예대 관계자와 향토작가의 교류가 깊어졌다.
- 3) 아트 코디네이션과 매니지먼트 분야의 프로들이 키워졌고, 이들은 다양한 지역과 기관에서 문화예술환경의 확장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 4) 지역문화조성과 예술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져서, TAP 의 활동에 참여했던 시민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관련활동을 시작하는 등, 지역문화활동의 확장과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 5) TAP 의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TAP 에 참가하는 아티스트, 스태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 6) 행정기관의 의식이 변하면서, 역 주변의 재개발에 따라 계획되고 있던 '예술관' 이 단순히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보다 밀접하게 관계하는 실천적인 공간으로 시동하게 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 년 이후의 새로운 활동체제

2010 년 11 월 26 일에 TAP 하부 구조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토리데아트프로젝트오피스' 를 설립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NPO 법인을 설립한 TAP 는 아래를 목표로 활동을 계속해간다,

- 1) 아티스트의 표현과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활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촉진한다.

→ 예술환경정비, 정보발신, 네트워크 구축



2) 토리데시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TAP 를 통해 이 지역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의 유발 , 도시력의 향상

3) 예술을 매개로 ,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계성을 창조하고 , 글로벌에 통용하는 가치모델을 창출한다 .

→ 사회적 가치의 창조 , 커뮤니티 형성

주최

토리데아트프로젝트 실행위원회

(토리데시 , 동경예술대학 , 아트토리데 , 토리데시 교육위원회 , 토리데시 상공회 , 재단법인 토리데시문화사업단 , 사단법인

조소우청년회의소 , 토리데미술허가전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토리데아트프로젝트오피스)

이바라키남예술의문창조회의

(이바라키현 , 토리데시 , 모리아시 , 토리데아트프로젝트 실행위원회 , 아카스프로젝트 실행위원회)

협찬

(주) 동일본가스 / (주) 야스이건축설계사무소 / (주) 신로쿠본점 / 토리데로타리클럽

협력

(주) 관동철도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 (주) 일본종합주생활 /

토리데 이노단지자치회 / Ino Artist Village / 토리데아트콩세르주

조성 등

재단법인 문화 · 예술에 의한후쿠타케지역진흥재단 / EU · 재팬페스트일본위원회

문의

주소 | 〒 302-0024, 茨城県取手市新町 2-5-5 2 階

전화 | 팩스 0297-72-0177 (전화 ; 화 · 금 13:00-17:00)

이메일 | tap-info@toride-ap.gr.jp